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燒酎의大王 勝利票 年釀造高八万石

赤柴部隊激戰後에 亳縣城東門奪取

城內로突入殘敵掃蕩

【○○二十九日發同盟】二十八日夜부터 猛攻을繼續中인 赤柴部隊의精銳는 二十九日午後八時激戰後 마츰내 亳縣東門을奪取하고 繼續하야 城內로突入 殘敵을 掃蕩中이다

【渦河河岸에서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永城으로부터 西進中인赤柴、沼田兩部隊는 二十八日約數千의敵을 擊退하고 果敢한 敵前渡河를敢行 二十九日早朝로부터 谷口○○部隊의 殷殷한砲擊과呼應하야 亳縣에 猛擊을加하고잇다

蘇浙皖鹽務署長 兪樸氏暗殺

【上海卅日發同盟】維新政府蘇浙皖鹽務署長 兪樸氏는 昨日午後共同租界의 白克路自邸에서 兪氏가雇傭한 護衛에依하야 暗殺되엿다 兪氏는 事變後의 新事態에處하고저 獨立機關으로改組된 鹽務署長으로서 國民政府와絕緣하고 鹽務署의事務를 遂行하고잇든바 國民政府側暗殺團이 該護衛를買收하야 暗殺케한것으로 解釋된다 徐州會戰의失敗後 마침내自暴自棄에陷한 國民政府가 惡辣한手段을弄하야 恐怖政策을 遂行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國共合作에危機

當地에到達한 情報에依하면國民政府宣傳部長 邵力子는 대마放送이暴露되여 歐米로부터 信任을잃게되고 責任으로 罷免되엿는데 其後任者는 適任者가업고 現在周佛海가 代行하는데 同人은 共產黨排擊의 急先鋒이오 部內 ○○關及 藍衣社로 재우고 他方軍事委員會 政治訓練部長 陳誠等과도 聯繫하야 國民政府機構內로부터 共產黨勢力의 驅逐을策하고잇는바 이를 探知한共產黨側에서도事態를重大視하고 周恩來其他首腦部는對策을考究하고잇다 彼等도 羅孟余의 失脚事件도잇서 今回의徐州敗戰을 機會로 從來의國民黨에對한 態度를 再檢討할수 밧게업고 內部情勢도 緊迫하게되여 兩黨間에는 國共合作의全面的崩壞危機가 充分孕胎되여잇다는바 蔣政權의沒落을促進하는 一因이되리라고觀測된다

隴海線南側을席捲

【徐州三十日發同盟】隴海線南側을西方으로 進擊하는 我○○部隊는 二十七日渦河를 단숨에渡河以來 繼續하야 西方으로 進擊을續行하는中이다 二十八日早朝 隴海線의 中部要都歸德을 攻略한 ○○部隊와 서로呼應하야 바야흐로 隴海線南側地區를 席捲하고 ○○方面으로 果敢한進擊을開始하는中이다

海軍航空編隊機 中南支各要地猛爆

【上海二十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昨二十八日海軍航空隊는 中南支의 極히 廣範圍에亘한 攻擊을하엿다

一、廣東을 攻擊한 約三十機로編成된 極히 優勢한 部隊는粵漢鐵道起點 黃沙驛을 爆擊하야 驛構內 施設貨車群을由하고 또 附近倉庫等을 爆破炎上케하엿다 그리고 省政府及 軍司令部를 爆擊하야其一部를 爆破하엿다 이空襲을할때 廣東市及 附近多數의 陣地로부터 極히猛烈한 高角砲、機銃의 亂射猛擊을 바덧스나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이支那軍 高角砲機銃의亂擊에依하야 支那市民에 多數의死傷者를 내인것으로認定된다

二、東莞(廣東省)西方의 砂糖工場에는 極히完備한 機銃陣地가잇서서 附近을飛行할때 屢次射擊을바덧스므로써 反復爆擊하고 直角砲에依하야 猛烈한火災를이르켯다

三、海州附近에는 아직도殘敵이蠢動하므로써 數次에 亘하야 海州及 附近村落陣地等을 爆擊하야 多大한損害를 주엇다

四、南雄(廣東省)飛行場을爆擊한部隊는 敵機를보지못하고 飛行場滑走路를 爆破하엿다

五、韶關飛行場을 攻擊한 部隊는 地上中型一機를보고 이를爆破炎上케하고 또燃料庫飛行場滑走路를 全面에亘하야 爆破하엿다 燃料庫는 猛烈히 引火되여 盛히炎上하엿다

六、廣昌(江西省)飛行場을 攻擊한部隊는 地上에 飛行機를보지못하고 飛行場滑走路를 爆破하엿다

七、南城(江西城)飛行場을 攻擊한部隊는 格納庫及飛行機一臺를爆破하엿다

八、寧波飛行場攻擊部隊는 敵機를보지못하고 滑走路를爆破하엿다

九、諸曁(浙江省)飛行場을 攻擊한部隊도亦是 敵機를보지못하고 飛行場滑走路를 爆破하엿다

東條英機中將 陸軍次官에任命

【東京電話同盟】陸軍省三十日午後二時發表 梅津中將은 五月三十日附로써 作戰地의某要職에親補되고 東條中將이 陸軍次官에任命되엿다

廣東附近爆擊

【上海三十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時發表

一、昨二十九日海軍航空隊는前日에繼續하야 三十機로써 廣東附近의 軍事施設을 爆擊하야 이에潰滅的損害를 與하엿다

가、黃沙驛에 對하여는 前日과如히構內施設及 貨車群과그附近倉庫를 徹底的으로 爆破炎燒시켯다

나、廣東市南東部飛行場修理工場을爆破한 部隊는 이를大破케하엿다

다、省政府軍司令部에 對하여도 多數의 命中彈을어더 이를炎上케하엿다

라、河南(廣東市)工場地區의國防陣地를 徹底的으로 爆擊하야 이를 거의 全壞시켯다

二、增埗(廣東市外)附近의 軍需品工場을 攻擊에向한 部隊는硫酸工場 兵工廠 세멘트工場을 爆擊하야 모두 大破炎上케하엿다 特히 硫酸工場電力工場은 猛烈한大勢로써 炎上하엿다

三、海州西方地區의 敵殘兵의集團部隊의 攻擊에向한 部隊는 道路上又는村落에據한 敵兵을、十餘個所에서 爆擊하야 이를潰走케하엿다

閑院若宮殿下 三十日御歸還

【上海三十日發同盟】北支方面에서 部隊로過去半歲에亘하사 作戰에從事하신 閑院宮春仁王殿下께옵서는 今回內地로 御歸還하시는途次를 利用하시사 지난二十日北支로부터 濟南經由飛行機로 上海御着 戰跡을 삿삿치御視察하시엿다 春仁王殿下께옵서는 二十日正午 上海御着 少憩後 大場鎭、軍工路、吳淞等에 敵前上陸한 戰跡을 御視察하시고 二十一日飛行機로 때마침猛戰繼續中인 徐州戰線에 飛行하시사 ○○戰鬪司令部에서 畑最高指揮官과 御會見 親히徐州包圍大殲滅戰의 狀況을 御視察하시엿다 다음에 南京湖方面의 一般 軍情을 御視察하시고 所在兵站病院을御訪問 傷兵將士에 對하사 御慰問의 말슴을 賜하시고 다시 杭州方面의 一般狀況을 御視察하신後 二十六日 上海御歸着 即時○○部隊를 御訪問하시고 일찌기 殿下께서 親히 御敎育하신兵에對하사 特히 御慰勞、御激勵의말슴을 賜하옵시엿다 各方面에亘하야 御研究心이기프옵신殿下께서는 다시中支方面의 經濟建設狀況을 御聽取하옵시기爲하야 二十七、八兩日에亘하야 軍特務部主任將校 谷正之公使 日高總領事를 비롯하야 官民有力者를 召하옵시고 各其御說明을 御聽取 二十九日飛行機로 常熟、無錫方面을 空中으로부터 御視察하시고 三十日午前八時三十六分、御搭乘御機 ○○○을御出發 內地에 御歸着하옵시엿다

李宗仁 阜陽으로逃走

【上海二十九日發同盟】徐州會戰의敗戰으로 民衆의英雄으로부터一擧에敗軍將軍으로 轉落한 第五戰區司令長官李宗仁의 徐州敗戰後의 去就는左와如한것이判明되엿다即 지난十七日早朝 我包圍陣이徐州西方으로부터 猛襲擊을 開始하든當時 李宗仁은 徐州南方符離集方面으로부터 我包圍陣을脫出하려고 決意하고 徐州陷落二日前 同日午後七時徐州를出發하야 十八日午後三時 夾溝西南方孫家寨에到着 同夜는暗夜에乘하야 手兵若干人에 護衛되여 西西舖로向하야 二十一日渦陽附近으로逃走、二十五日午後十時 阜陽에到着하엿다 眞相이라한다 그리고 我徐州包圍網으로부터 逃亡한二十九軍長 湯恩伯은 退却에際하야 我銃彈을맞고右腕에重傷을負하엿다한다

張自忠傷後死去

【上海二十九日發同盟】徐州會戰에서 敵第五十九軍長으로 宋哲元軍의指揮에當하엿든 張自忠은 前線에서 戰死하엿다고傳하더니 確實한 情報에依하면 前線의戰死說은 誤報로 張自忠은 重傷을 負하고 武昌에 護送되여二十六日 마츰내 死去한 事實이 잇다

蔣南支防衛嚴命

廣東福建省防備特別强化

各地에서民團軍訓練

【香港二十九日發同盟】皇軍의 厦門占領은 全然支那側의 뜻밧게의것인데 支那軍事當局은 唐惶焦燥하야 爾來必死的으로 南支沿岸의 防備를 進行하고잇는데 最近에 이르러 香港及約一個月前에 完成된 雲南緬甸通路에依한 軍需品의 輸送은 오직 여기에 뭇이라한다 確聞하건데 蔣介石은『如何한犧牲을 하드라도 南支를 防衛하라』고 嚴命하는同時에 南支防衛에關한 巨大한 計畫을 樹立하고 이를余漢謀에게 指示하여왓다고한다 廣東福建省境의防備는 特히强化되여 飛行場等도 地下格納庫를 築造하게로되여 一部는 이미 建設을完了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一方壯丁의 訓練과 兵器充實에 狂奔하고잇는데 舊十九路軍의 蔣光鼐、蔡廷楷等도 目下廣東에서 各地民團의 訓練에 當하야 必要한時는 雲南湖南 江西等으로부터 民團軍의 增援을 求할수잇도록 準備되여잇다 (寫眞은 蔣介石)

鎭南、南寧線計畫

長期戰抵抗線을南支로移轉 首都候補地로廣西要都物色

佛對支援助注目!

【上海二十九日發同盟】獨逸人軍事顧問의 漢口撤歸와 同時에어느듯 雲南으로부터 佛國人軍事顧問數名이 漢口에 到着된 事實에 鑑하야 佛國의 對支援助의 動向을 注目하게되던이때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佛國은極히 有利한 條件下에 廣西省과 佛領印度支那의 境界鎭南關으로부터 龍州經由、南寧에 到達하는 鐵道敷設權을 獲得하야、今後八個月以內에 이를 完成하려고 着着準備를 進行하는中이라고한다 湖南省衡陽으로부터 廣西省으로드러와 桂林을經由 南寧鎭南關으로 나오는 自動車路는 이미開通되엿는바 이것은衡陽으로부터 鎭南關에는 不過三日間에突破하는 優秀한 道路로써 英佛로부터 供給되는 武器는勿論 蘇聯으로부터 供給되는 武器도 重要한것은 佛領印度支那 海防、河內方面으로부터 이自動車道路를 利用하야 武漢方面으로 輸送되고잇는 現狀으로보아 佛國의投資에依하야 鐵道가完成되면 鎭南關、南寧間 鐵道의 政治的軍事的意義는 자못重視하게된다 或者의 觀測에依하면 同鐵道의敷設은 國民政府가漢口를放棄한後 首都를 廣西省으로 移轉하려고 벌써부터 企圖하고 首都의候補地로 南寧과 桂林의兩處가 올라잇다 어째든漢口를 放棄한後 國民政府는長江沿岸을斷念하고 南支方面으로 長期抵抗線을 移轉코저 하는모양이다 最近에 잇서서는 이미左와如한事實이 나타나게되여 이事實을證明하고잇다

一、武器製造廠 火藥貯藏庫等을 貴州 四川、雲南、湖南方面으로 移轉或은 新設하는中이다

一、昆明、貴陽間에는 六萬의勞働者를 使役하야 軍用道路를 開設中이다

一、昆明에는 石油탕크 其他武器貯藏建築物이 增加되고잇는等 昆明은 最近에至하야 人口가 戰前의 約四倍로 된바 就中 佛國人의 增加가 太端하여 佛國의 南支進出을 企圖하려고 如何히 虎視耽耽하고 잇는가를 推察할수가잇엇다

佛領印度支那當局

對支武器輸出重大措置

【香港二十九日發同盟】佛領印度支那의 佛國當局은 最近對支武器輸出에對하야 重大措置를 取하고잇는 模樣인데 佛領印度支那에 잇서서의 佛國當局의 懷柔策動은 온갖 手段으로 執拗히 行하고잇다 그리고 雲南、貴州、廣西、廣東、四川省과 佛領印度支那와의 經濟提携를 結成하는 件에 關하야 協議가 進行되고 잇다고한다 그리고 이것은 河內昆明鐵道를 延長하야 四川省敍州에 達하는 鐵道敷設計畫이 進行中이라한다 이는 雲南、緬甸間自動車道路完成과 關連하야 極히重大한 役割을 하는것으로 注目된다 一方海防으로부터 廣西에至하는 鎭南關으로부터 龍州에達하는 七十五粁로의 延長工事도 이미 測量을마치고 材料가 準備되고잇다고한다

下切墻占領

【北京二十九日發同盟】二十八日 蘭封西北方三義寨의 戰鬪에서 我○○部隊는 三義寨東方村落下切墻에依據한 敵을 殲滅하고 이를 占領하엿다

河川令施行規則

朝鮮河川令改正에伴하는 朝鮮河川令施行規則改正은 總督府令으로써 三十日公布되엿는데 其主要點은 一、總督이 管理하는 河川에關하야 一部適用(洪水氾濫區域 其他의 危險地帶使用及 居住의 制限) 二、準用河川에對한 制限規定의 其他이다

總督府蒙疆出張所 張家口에新設

東北支朝鮮同胞의 指導保護撫育及北支經濟開發에對한協力 朝鮮產業經濟의 北支進出等을 積極的으로 遂行하기爲하야 總督府에서는 北支蒙疆方面의 機關의 整備擴充에 對하야 事變의 經過에따라 關係各方面과 折衝을거듭하는 一方 總督府內에서도 그方策을 研究中이든바 요즈음 各方面과의 交涉이 成立되여 總督府內部의 人事 豫算等의 問題도 一段落을告하엿스므로 茲에北京에 總督府北京出張所 張家口에 總督府蒙疆出張所를 新設하기로된 旨를 二十日總督府外務部에서 發表하엿다 그리고 北京出張所는 在外朝鮮人 指導에經驗이잇는 高橋事務官을 所長으로 그아래 室田事務官 倉島事務官을 配하고 또囑託一名 雇員三名을 配置할터이며 蒙疆出張所에는 森長文事務官所長下에 屬一名 囑託二名 雇員二名을 配하고 또 安全農村所在地에도 囑託一名 雇員一名을 配置하야 現地軍部外務省及 臨時政府其他各方面과의 交涉聯絡에 當케하야써 前記趣旨의 貫徹을 期하는一方 外事警察事務及 情報蒐集事務等도 併施하기로되엿다 그리고總督府에서는 將來의 推移에 따라 將來에는 青島 濟南 石家莊 山海關方面에도 囑託雇員等을 配置하야 朝鮮人의 北支進出及 朝鮮產業經濟의 北支發展에 萬全을期할意向이라한다

주데렌黨員 社民黨員과衝突

【프라하二十九日發同盟】獨逸少數民族問題를 中心으로 反目을繼續하는 주데렌黨員과政府系獨逸社會民主黨員이 二十九日午前二時頃東部쥐코의 小邑지소에크에서 衝突事件을 惹起하야 주데렌黨員에게 重傷者一名輕傷者三名의 被害者를 내엿는데 쥐코警察隊는 即時關係者七十五名을 檢擧하야 紛爭은一旦落着되엿다

二千土匪軍擊滅

【上海二十九日發同盟】黃浦江北岸地區一帶에 出沒하야 糧食掠奪 其他暴虐無道를 일삼어 良民을 괴롭게하며 靑天白日旗를 揭揚하고 上海杭州間 鐵道沿線을 掠奪橫行하든 約二千의 土匪軍에 對하야 丸山、逸見、田中各部隊는 海軍砲艇隊와 協力하야 去十七日부터 大掃蕩戰을 開始하고 漸次包圍陣을 縮少하면서 ○○部落에서 數次에亘하야 攻擊을 하야 巨砲를퍼부어 壯烈한 殲滅戰을 展開한結果 土匪軍은 屍體約七百及 軍旗重機關銃等多數를遺棄하고潰走하엿다

厦門總領事館 二十七日開館式

【厦門廿九日同盟特派員發】厦門對岸의 鼓浪嶼에잇든 我厦門總領事館은 廿七日 閉鎖以來 九個月만에 開館式을 行하엿다 同領事館은 國旗를나리고 閉鎖한以來 꼭九個月이엿다 그리고 同館은 工部局의 警備가 適當하엿기때문에 아무 損傷을입지안엇든것이다

時事解說

政友會總裁問題

去二十五日政友會全國支部長會議에서 總裁問題가議論되엿스므로 砂田幹事長이 本部에 代表하야『時急히 代行委員制를 廢止하고 總裁를 推戴하기를 바란다』고 決議하엿다。그리하야 今後의 政友會는 總裁問題가 重大한 局面에 立하게되엿다。

昨年二月二十八日 鈴木總裁가 辭任한後 中島、鳩山、前田、島田의 四代行委員制로 되어 今日에 이르럿는데 [illegible]

人事·集會

◆中野金次郞氏(東京商工會議所副會頭) 日滿實業協會會員 同上

◆齋藤(?)良衞氏 人事大來社

◆前井(?)氏(日滿實業協會) 同上

◆長谷部(?)氏 (日滿實業協會) 同上

◆桐木(?)氏(京城商工會議所) 同上

◆村山知義氏(劇作家) 朝鮮映畫社의 春香傳撮影次入京中來社

人面錄

全南及 慶南地方에 旱害가 甚하다。

◇

旱魃에 아니라 洪水가 터도 버작 좀 오면 洪水가 질터이니。

◇

今年度 治水工事豫算도 相當히 計上햇스니 좀흔 結果를 期待하거니와。

◇

三南에 限치 안코 全道에 治山、治水工事를 完全히하야 生命、財產을 保護하라。

◇

不戰條約을 遵守하는 外交方針은 依然히 不動하다고 米國務長官 言明。

◇

方針만 가지고 實行力이 업스면 무엇하나?

◇

英國도 聯盟支持를 聲明하지만 現實에 如何할수도 업서 伊에合併承認、對西干涉의 默認을하는 傾向이 엇지 안흔가。

職工募集 年齡十八歲以上職工有經驗者 ○名採用希望者履歷書携帶本人面談來訪 野田興農商會京城支店

ツヅキ陳列所 電本三三二一

自轉車 實用同一臺二十四圓以上 各種在庫 子供自轉車十九圓內外多數有り 外三輪車 京城南大門前角

板谷生命保險 朝鮮支店

貯蓄保險係募集 三百圓均一 小口 每月 年齡二十五歲以上 京城府永樂町二ノ五六

讓店 特殊有利事業府內目拔ノ場所 人直接來談ノ事 本局二七四〇

美容室向貸間 有希望者ハ電話光化門三中央寫眞館

朝報案內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봄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欲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슴

カゴメ ケチャップ 御料理にかけておいしく召上れ

ヤンマーディーゼルエンヂン 在庫豐富 ヒユーガルポンプ 2吋ヨリ12吋迄 2HPヨリ120HP迄 於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內燃機界의覇王 平安南北道總代理店 古賀商會 平壤府八千代町六二 電話一四五八番 私書函一五一號 振替京城一六九番 型錄進呈

漁具 投網、鳥捕網、釣針、絹糸、釣竿、繼竿、釣綿糸、麻糸、其他各種 京城府黃金町四丁目 製造卸商 海鮮商會 電話本局四三七〇番・振替京城二〇五九番 (定價表進呈)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〇 電話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2)七二七五番(自宅)

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新學期開始 六月拾日午後部 ▲各官廳、銀行會社、商店等就職紹介 ▲各科書夜 ▲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六〇)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文官科 ▲新學期開始六月拾日午後部 ▲學則要二錢切手 巡査、看守受驗準備科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六〇)

理想の強力殺虫液 フマキラー

青年諸君! 光明ハ技術カラ求メヨ 時ハ非常時、本所ノ義務ハ報國運輸勇士養成ニアリ 最大ノ設備ト最大ノ歷史ニ輝ク權威アル本所ニ今直グ入學アレ 講師尹用圭先生ヲ今回迎へタリ 學則無料進呈 本所ノ講師ハ自動車界代表的名士ナリ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四七 朝鮮第一自動車學院

急報 南京虫絕滅劑 (빈대 염세 약) デリス殺虫劑(DRS印)入荷 國家總動員體勢下의우리家庭이나工場에此一劑을投呈하야여러분의安眠에依한健康을保證하고翌日의活動力을倍加하는本邦嚆矢의南京虫用殺虫劑을一次試用하세요 (根絕、絕對保證) デリス殺虫劑(DRS印)(七五瓦、七五錢)(一五〇瓦、一、二〇) 有名藥店에서販賣합니다 ◎各地方特約店募集 發賣元 合資會社 北島藥店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一二三四、四八八番

日本共産黨再建事件全貌

全國十四府縣에서 千三百名을檢擧
二百三十五名起訴코 二百三十八名은起訴猶豫

卅日解禁

【東京電話同盟】 내무성경보국(警保局)에서는 국내의 언론전선운동에 준엄한취조를하고잇는데 여기에압서어떤 지나사변이 어러나기전 즉 소화십일년사월경부터 소위 일본공산당 정통파(正統派)의일부가 그동안 수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지하운동을 계속하야 변명한속에 "일본공산당중앙위원재건준비위원회"(日本共産黨中央再建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여러가지의합법적문화단체를조직하야 적화운동을 재건하려는 사실을 탐지하고 동년 십이월오일을기하야동경, 대판, 경도, 애지(愛知), 강산(岡山)등 십사부현에 걸쳐전기 "재건준비위원회"중앙위원 화전사삼사(和田四三四)(二九)등 오촌수송(奧村秀松)(三六)동궁본희구남(宮本喜久男)(三四) "신흥불교청년동맹"중앙위원장매미의랑(妹尾義郞)(四九) "노동잡지" "사법행인 내야장아(內野壯兒)(三一)등을려사백명을일제 검거하자 당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도를 금지하고 "당재건준비위원회" "전협재건위원회"(全協) "신흥불교청년동맹" "각지공산주의그룹" 기타합법문화단체잡지관계자 변호사 소암정생(小岩井淨)(四二)급우사 강구환(江口渙)(五二)등 일천삼백명의 다수를 전국각부현에서 속속검거하야 그중 이백삼십오명은이미 기소결정(기소유예 이백삼십팔명)이되어 사건이 일단락을 지엇스므로 내무성에서는 삼십일오전 열한시를기하야 기사게재를 해금하고그전모를발표하엿다

相剋團體와도提携 合法僞裝에注力
人民戰線結成에狂奔

【東京電話同盟】 內務省發表=근래 아국공산주의운동의 현저한 쇠퇴경향에 따라서 극좌분자간에는 『파거의 "쎅트"적고당운동 방침은 다만 히생을 만히낼뿐 효과가 적으므로 장래에는 가능한범위내에서 합법운동을 위장하고 또는이용하지안흐면 안된다』라는 기운 정세에 어르자 "꼼민테른"의 소화십년여름제칠회 세계대회에서

一、파시즘에 대한반대 투쟁을 가지고 당면의 주요임무로할것

二、어것을 수행하기 위하야는 종래 배척해오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등 대중단체와 제휴하고 어것과협동투쟁을하야 인민전선을 확립할것

三、국러합법운동을 이용또는외장할것

四、종래와가튼 국제적 획일운동(劃一運動)방침을 폐지하고각국의 국정에 적합한전략전술을 채용할것

등의운동방침을 결정하고 미국공산당(米國共産黨)내게에 방자(邦字)선전인쇄물을 부치고 혹은 동양공산대학 졸업의방인공산주의자의 파견에 의한 운동의지시선동등 적극적으로 책동해온까닭에 일본의 공산주의운동은 여기에 세력을 어더서 다시 대두발전하게되엿다 그중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개의 소위 정통파분자의 활동이 특히 현저하게되엿스므로 내무성에서는 관계부현(關係府縣)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관계십사부현에서 소화십일년십이월오일부터 검거를 단행하고 취조에 따라서다른공산주의의 "그릅"를 점차로 검거하야 전국각부현에서 일천삼백명이상을 검거하엿다 그리하야 그기소자(起訴者)이백삼십오명 기소유예자 이백삼십팔명에 달하는데 금후도 기소자가잇슬터이다 금번의운동은 소화십일년삼월경 관서지방을 중심으로일본공산당관서지방위원회(關西地方委員會)가 결성되여서 동년유월 일본공산당중앙재건준비위원회(中央再建準備委員會)로개칭하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개시하엿는데 종래와가치 대중을 형식적으로 공산당에 입당시키기보다 실질적으로공산당의 활동에 참가시키는데 주력하고 또한경시청관하에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의재건위원회가 결성되여서 적색의방침을 합법조합에 반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활동하엿다 더욱 신흥불교청년동맹(新興佛敎靑年同盟)에 잇서서는 불교종파운동의기성교단혁신의 명목하에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방침인 반『팟쇼』인민전선운동과 관련시켜서 활동하엿다 그밖게

一、순전히 일본공산당의 대행기관으로써의 비합법『그룹』

二、합법노동조합을 위장 또는 이용

三、합법농민조합을 위장 또는 이용

四、『푸로레타리아』에스페란토 단체 해상(海上)노동자결성국제연락을 중심으로한것

五、문화단체와 동인(同人)잡지 발행의 형식에의한것

등 여러가지 형태를가젓고 그 운동형태는 모두 『꼼민테른』의 새로운 방침에의한것으로써 그 특이성

(가) 고도(高度)의 『슬로간』강령은 이것을 전면에 내여걸지 말고 주로지방의 특수사정에 따른일상의 비근(卑近)한것을 취하며 중심목표를 반팟쇼인민전선수립에두는것

(나) 종래 배척하던 사민주의(社民主義)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단체와 제휴한것

(다) 특히 사회대중당(社大黨)을 중심으로한 인민전선화합에 노력한것

(라) 비합법문서발행을 제한하고 국러합법위장(僞裝)을 노력하야 발행한것

(마) 국러합법문서를 이용한것

(바) 구두연락(口頭連絡)구두선전에중점을둔것

(사) 연락활동에 잇서서도 종래와가티 전형적당에 회한하지 안코 개개인이 면접 이상이식의 정오『그룹』회합에의하야 의사교환과 의지의결합을 도모하야서 피차의취체를피한것

(아) 선원(船員)『푸로·에스어』(國際語)또는 국제연락을 도모한것

등 요컨대모두『꼼민테른』제칠회세계대회의 결의방침에 의하야『푸로레타리아』독재에 의한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폐지하야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시킬목적으로활동해온것이다

美展入選者發表
出品一一三四點·入選二六三點 無鑑査二十五點에推薦은九點

오는유월오일부터총독부후원에서 열리는 조선미술전람회출품작품에 대한심사결과는 삼십일 총독부로부터 발표되엿는데 그 점수는 총계에잇서서 출품일천일백삼십사점에 대하야 입선이 백륙십삼점 무감사이십오점 추천작품구점이고 각부별로보면 다음과갓다

▲第一部(東洋畫)出品一四四點入選四六點 無鑑査五點推薦四點
▲第二部(西洋畫)七九四點入選一三七點 無鑑査一一點 推薦五點
▲第三部(工藝)出品一六五點 入選六六點 無鑑査七點
▲第四部(彫刻)出品三一點 入選一四點 無鑑査二點
(以下○票는初入選者)

▲第一部(東洋畫)

▲○麗江(平壤府)原竹竹男 ▲銃後의사람(群山府)金殷鎬 ▲朝鮮(京城府)田中高四郎 ▲喜雨(同)崔根培 ▲水鄕新秋(咸北茂山郡)南瀨岸(同)李應魯 ▲東園春(同)李應 [illegible] ▲(京城府)淺田正雄 ▲晩壯 ▲春(同)許楗 ▲谿谷(京城府)裵濂 ▲○蘭(同)黑木ノ기미 ▲東郡河源 ▲(同)李康煥 ▲南天(同)谷口男 ▲原遊(同)鄭道和 ▲秋春(同)張遇聖 ▲○千人針(同)市川榮三 ▲田家(木浦府)許林 ▲時雨 ▲靜姿(京城府)中西冬子 ▲○書 ▲시골을본대로(同)鄭用姬 ▲忘憂里風景(同)金永基 ▲少女(同)五井園子 ▲○演(〃)鄭鍾汝 ▲○山村水聲(〃)鄭鍾汝 ▲嫩葉(同)江頭子 ▲長堤暮春(江原鐵原郡)谷口義一 ▲麗春(京城府)西本가네 ▲夏日(同)吉田富貴子 ▲○勝鳥(同)海老原幸子 ▲暮韻(京城府)金基昶 ▲春日(同)金重鉉 ▲○우구레잇는靜物(同)平野春子 ▲雄視(同)趙重顯 ▲燈火에親함(同)宋巳根 ▲기빠 ▲秦世淵 ▲그림그리는童女(同)江口千壽子 ▲○庭園一隅(同)山口大約進 ▲○新鮮(京畿安城郡)李碩 ▲○春耕(京城府)李漢九 ▲○女兒(京畿楊平郡)許儀 ▲銃後(忠南舒川郡)安保道子 ▲少女(京城府)岡崎子 ▲野路(〃)後藤正 ▲中庭(平壤府)田淵秀明 ▲○郊外(京城府)沈銀澤 ▲市日(同)千葉房男 ▲夏日 晏(?)이라(同)今田慶一郎 ▲市(同)江口敬四郎 (同)金基昶

推薦及無鑑査
▲渡船場(京城府)淡田正雄 ▲晩壯 ▲淸溪(同)李象範 [illegible]

▲第二部(西洋畫)

▲郊外風景(京城府)吉田稻夫 ▲夏風景(忠南燕岐郡)明日勳 ▲敎室一隅(同)同 ▲庭上의夕陽(大邱府)金龍祚 ▲○靜物(同)同 ▲漁船(同)▲[illegible] 里風景(同)鄭山坦 ▲香爐(同)金殷鎬 ▲扶餘所見(同)加藤隆吉 ▲藝醒(同)李象範 ▲山羊之圖(同)李英一 ▲跳躍(同)宇野佐太郎 ▲靜寂物(釜山府)畠山茂 ▲레니쏘크ー의잇는風景(大邱府)伊藤久枯 ▲花園(同)同 ▲小女習作(京城府)白漢濟 ▲K의像(同)同 ▲路次(同)吉永鐵哉 ▲廢墟(同)藤田正甫 ▲○習新鳩스켓취(平壤府)間瀨正治 ▲風景(同)崔淵海 ▲女人像(平壤府)崔淵海 ▲風景(京城府)林水龍 ▲靜物(釜山府)徐泰晳 ▲○室內(同)藤澤俊一 ▲花(同)同 ▲窓邊靜物(京城府)井上滋子 ▲黃色과白布의靜物(慶南晉州)岡昇 ▲野原(慶南、東萊)一井 ▲烏治郎 ▲少女(同)同 ▲高麗雛와鳴(慶北 尙州)鈴木一德 ▲經學院(京城府)大塚惠志 ▲○屋後(同)小林義明 ▲朝鮮風景(同)芝田龜夫 ▲○午後(同)伊勢田邦男 ▲○門(同)金命求 ▲○町外風景(同)邦德天 ▲人物(同)根津莊一 ▲팡이(同)同 ▲中央線敷設工事場(大邱府)久野大二 ▲讀書(忠南公州)田中傳吉 ▲新綠時(慶北安東)龔孫潤 ▲坐像(大邱府)橘嘉男 ▲前庭(同)同 ▲女人坐像(京城府)石井守 ▲門(大邱府)高柳禮行 ▲午後(〃)岡田淸一 ▲蔓巴(〃)朴在奉 ▲○風景(〃)金顯命 ▲○朝鮮의女(京城府)不破路子 ▲○여름의파랑(〃)李大物(大田府)吉田嘉平 ▲○五人의아이(京城府)高錫 ▲正午의牛舍(京城府)浦田清輔 ▲聖母坐像(〃)(京城府)崔鏞 ▲○窓에서(大邱府)松浦秀雄 ▲雨後의大同江(平壤府)朴泳善 ▲五嬢(京城府)松崎喜美 ▲回春苑(同)同 ▲支那人의少女(同)이라라라(京城府)瀬田親吾 ▲○農村追憶(咸興府)金源 ▲○學童(內金剛)李炳三 ▲鶴岩里遺蹟所風景(咸興府)中野六郞 ▲靜物(同)州島 金仁志 ▲○聖○子供(京城府)赤如嗣 ▲景林公園(釜山府)赤如嗣 ▲着衣習作(同)李鳳商 ▲町外(仁川府)平川雅夫 ▲○制服(京城府)林正子 ▲○花(同)李鳳商 ▲南邑(同)田口長雄 ▲○淺春(慶北慶州)大平輔子 ▲妹의習作(釜山府)古田正民 ▲李朝舊의花(京城府)山田기미 ▲坐像(同)藤澤俊城府)山田기미 ▲○五反田風景(同)藤瀨濶 ▲○魚의靜物(同)渡邊泰子 ▲K君(同)德樹煥 ▲東亞과봄(同)永原培鶴 ▲初夏城外(同)同 ▲○秋花(同)辻和子 ▲○靜物(同)李雲伊 ▲城門(同)藤田明一 ▲內庭秋日(同)同 ▲한때(同)長谷部千恩 ▲○敎會 ▲잇는風景(同)齋藤寶 ▲○少年 ▲(同)鄭鎭淑 ▲少女(同)同 ▲靜物(鎭南浦)木村光江 ▲人形(同)同 ▲○기라ー(京城府)鄭觀江 ▲人物 ▲

推薦及無鑑査
▲好日(京城府)三木弘 ▲○名曉(同)松田盛雄 推薦 ▲○風景(平壤府)嚴榮林

▲第三部(工藝)

▲장미(忠北永同郡)金重春枝 ▲○飯入籠(京畿高陽郡)溝口擴四郎 ▲辰砂菊紋手爐鳳凰花瓶(全北花燈部)丹下成次 ▲靑磁辰砂鉢(京城府)雨山臨 ▲閑寂室羅瓶瑞硯 平北定州郡 金現洙 ▲自然石硯(同)元希貞 ▲○柿彫硯(同)崔致範 同 同 ▲牧丹硯 同 朴永俊 ▲○六曲屛風(桐鑿)(京城府)尹鳳秀 ▲○愛子(同)井村久枝 ▲○鄭木蒔繪箱(平南平壤府)板若平八郎 ▲彫描文様彩漆飾小箱(同)阪部幸太郎 ▲菜根文蒔繪香盒(同)金○原庄太郞 ▲○노리개藥品茶籠(同)松井民治郞 ▲○노리개藥品菓子盒 同 [illegible] ▲草七角菓子盒 同 ▲ [illegible](京城府)李[illegible]

▲人形(京城府)玄[illegible]植 ▲○屛風(同)任義淳 ▲雉之圖螺鈿衝立(京城府)魚住義三 ▲漢陽高麗燒古代寫青磁象嵌辰砂入水注(同)宗高猛 ▲漢陽高麗燒刻三島一輪瓶(同)同 ▲朝鮮刺繡枕屛風(同)淺川牧榮 ▲鏡鏡(新義州府)梶芳道興呂 ▲鐵砂香爐(同)吉田吉 ▲○飛鳥文花瓶(京城府)佐藤武 ▲朝鮮高麗燒麗象嵌辰砂葉子鉢(同)同 ▲螺鈿硯石(同)韓錫萬 ▲○屛風(菊 梧桐)(開城府)朴乙福 ▲○春風(京城府)鷹原啟子 ▲○龍(同)張善禧 ▲○花鳥(同)中村元 ▲○鳳凰(同)羅明均 ▲螺鈿漆器衝立(同)家出清藏 ▲螺鈿染朝鮮風俗屛風(同)淺川鏡次 ▲○朝鮮模樣螺鈿銘箱(同)申興均 ▲○熱國變遷(同)岩田미쓰子 ▲○한드바(同)本山八重 ▲螺鈿한드바(同)郷寅娍 ▲螺鈿製한드바(同)同 ▲同○○(同)同 ▲○白磁瓶 ▲同 本山八重 ▲龍鳳模樣螺鈿花瓶(全南光山郡)金東助 ▲○螺鈿人瀨朝鮮紋二枚屛風(京城府)李大源 ▲眞鍮(?)朝鮮鐘紺型미스丁(同)李男伊 ▲○喜子珠簾(慶南統營郡)趙再圭 ▲○石釜(咸北城津郡)李秉洙

無鑑査

▲丸形花瓶(忠南大田府)杉光武右衛門 ▲紙物製食桶一式(京城府)李萬升 ▲北鮮產人造絹織衝立(同)鎌田綾子 ▲官舍硯(平北龍川郡)金現彬 ▲乾漆花瓶(東京市)姜富國 ▲目白鳥(京城府)淺川牧榮 ▲生花籠(全北益山郡)權重顯

▲第三部(彫刻)

▲靜觀(京城府)尹承旭 ▲閑日(同)同 ▲○戀吾의얼골(同)金丁秀 ▲○學徒(同)崔相淳 ▲기타ー튼는사내(同)佐伯輝一 ▲口紅(同)戶張幸男 ▲女人立像(同)金復鎭 ▲○自作像(同)金甲洙 ▲○젊은女人의頭(咸南利原郡)玄聖珪 ▲W孃像(同)張賢達 ▲○自像(黃南鳳山郡)中村豆一 ▲생각하는사내(京城府)佐伯三夜 ▲胸像(同)同 ▲胸像(平壤府)金斗一

無鑑査
▲浴後(京城府)戶張幸男 ▲白花(同)

第一部審査員 矢澤弦月氏談

내가조선에오기는 제칠회『선전』심사위원으로 래선한이래 이번이 처음인데 과거 십개년동안에 당국의노력과 작가들의정진에의하야 조선미술계는 실로 대약진을 보앗다 어것은 특선또는 추천작품등을하야 충분히 알수잇다 반도미술은 리해잇는 현당국에의하야 금후일층 급진전할것으로 밋거니와 당국에서 속히 미술교육기관을 와비하야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장하기를바라는바이다

第二部審査員 和田英作氏談

『선전』심사원으로서 내가여기 오기는 이번이두번재다 전회는 대정십이년 제이회때이엿는데 과거십오년간 조선미술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경이적으로 발전되여 인제는 중앙화단에비하드래도 거이손색이업다 이대로 간다면 조선 본래의 자래를 표현하는 반도 독특한 미술을 수립하게될날이 머지안흘것이다 여게서 욕심을 부린다면 대부분 작품이너무 중앙화단의 공기를 따르는데 급급한 늣김이잇다는것인데 어점은 유감이나 조선서도미술을 자랑하지만은 공립과 지도방면이 불완전한 터인즉 이것이 와비되는날에는 일층더 크게 진보될것이다 그리고 나는그날이 속히오기를고대한다

第三部審査員 高村豊周氏談

조각에대한 지도기관이 업는이땅을 생각할때에 의외라고할 만치 우수한작품이 만히나온것은 실로 기쁜일이다 공예품도 그 전부를통하야 비상한 활기를볼수잇다 다만 조선에 독특한 라전(螺鈿)이라든가 자수(刺繡)기술이 전통에서지한점은 주문이상작자가 그전통적기술을 현대생활에 맛게하려고 노력하고 또어는정도의 효과까지 나타낸것은 기쁜일이다 그리고 이런 출품은 조형별로보든가 형태급문양(形態及文樣)의 연구로보든가 그재료방면으로보아서 비상한 약진이라고 아니할수업다

制服의二八少女 登校한채失踪
惡友에게誘拐안됏나

제복의처녀가 등교한채로 의문의실종을한 사건이잇다 시내 수하정(水下町)륙십삼번지 강국세(姜國世)씨의 누이동생으로 시내계성(啓星)소학교륙학년에 단이는 강국원(姜國媛)(一七)이란 소녀는 이십팔일아침학교에간다고나간뒤에 어래삼사일이되도록도라오지안는다하야 삼십일소관본정서에수사원을 제출하엿는데 근래어러한 제복의처녀의 괴상한실종사건이 빈발하고잇서부랑소녀단에게 유괴를당하지 아니하엿나하여 경찰당국은 사면팔방으로 수배수사중이다

擔任先生談 그애는 금년사월에 편입시험을 보고드러온 아이라자세한것은 잘모르겟슴니다만은근실한 아이인것만은 사실임니다 학교에는 이십칠일부터 나오지안앗슴니다

學年別陸上競技 養正·培材優勝
一學年은京工、演補는京師軍 昨日京城運動場의壯觀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二回京畿道明子中等學校學年別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九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이대회에 參加한 十三個校各學年代表選手六百名(延人員數)이參加하가운데 擧行된바 別項成績과가티 第一學年에는 京城工業 第二、三學年에는 養正、第四、五學年에는 培材、演補科에는京師가優勝하엿다(數字는득점)

各學年得點順位表

▲第一學年=優勝校…京城工業四○點、第二位 培材二八點、第三位 景中二一點、第四位 徽文一○點、第五位 普成七點、第六位 中央五點、第七位 仁中二點、第八位 京中一點

▲第二學年=優勝校…養正三二點、第二位 京師一七點、第四位 培材二七點、第五位 景中一五點、第六位 京工一三點、第七位 普成二點

▲第三學年=優勝校…養正五四點、第二位 景中四三點、第四位 培材三六點、第五位 京師一二點、第六位 京工一八點、第七位 普成三三點、第八位 仁中七點、第九位 景中六點

▲第四學年=優勝校…培材中學一五點、第二位 養正四二點、第三位 普成三三點、第四位 徽文二五點、第五位 中央二一點、第六位 京師二七點、第七位 景中一九點、第八位 京工二一點、第九位 中央二點、第十位 京師一一點、第十一位 普成一三點、第十二位 仁中二點、第七位 普成一四點、第八位 景中六點、第九位 仁中一點

▲演補科=優勝校…京師二六點

安井盃爭奪庭球戰績

國安井誠一氏盃爭奪全鮮庭球大會는 豫定과가티 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A、B兩코ー트에서 擧行되엿는데 雨天關係로 中止한바 其決勝은 오는 三十日午後四時半부터 續行하기로되엿다

◇第二回戰
殖銀(崔永信、蔡春仁) 4—1 實導(金鎬斗、梁承殷)
府廳(金炳淳、河合) 4—1 遞信

洛東江一時增水로 各地列車事故續出
京釜線、慶全南部線等一時不通

鐵橋珍自殺屍判明

이십구일 오전팔시경에 한강철교를 진행하는열차속에서 강철교를 건너자 투신자살을 하려다 가 철교기둥에머리를 부딋처 두개골이 바숴저서 쓰러져 사한 신원자살자의 신원은소판용산서에서 조사하든중이양(安養)에사는리홍태(李興泰)(?)로 판명되엿는데 리는경부선의복선공사중의 인부감독으로잇서든데 자살의원인은 생활난으로판명되엿다

【鐵道局着電】 이십칠일부터 란비로할이알아 락동강(洛東江)에는 물이만히불어서 삼랑진(三浪津)철교밋 수위(水位)는 이십구일오후다섯시십분현재로는 철교교각이 육미돌사십오분이엿는데 밤중에는 오미돌사십오분이로 물이작구불어올라와서 한시간에 이십『리둘』식 증수하엿는데 때문에 각지에 사고도만히발생하엿다 그러나 물도다부로물러섯다한다 각지의철도사고는 다음과갓다

▲【鐵道局着電】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 덕산(德山) 창원(昌原)사이의 삼랑진기점이십팔키로되는 곳에서도 이십구일오후세시반경에 산울 끈어넘길에서 흙이무너저서오후네시오분에 복구되엿다 가튼 열차와 그날오후영시오분에 진주(晉州)서떠나 삼랑진으로가는 열차는 모두불통되엿다가 그날저녁여섯시에 복구되엿다

▲이십구일오후에 만포선(滿浦線) 신현(新峴)묘향산(妙香山)사이의 순천(順川)기점팔십륙키로지점에 흙이무너저서 두개가 떠러저서 궤도네개가손상되여열차운전을할수업게되엿는데 얼마안되여복구개통되엿다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少年小說朗讀 鄭寅燮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講演 韓圭復 ▲七時 情報 ▲七時三〇分 玄琴과伽倻琴、大笒 ▲八時 小說 金鮮英 ▲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 全光泰 ▲九時 歌謠 金蘭姬 ▲九時一〇分 國語講座(三) ▲第一放送 ▲七時一〇分 午後六時(忠)南國歌 ▲七時四〇分(城)獅子舞 ▲八時(大)吹奏樂 ▲八時三〇分(東)謠曲 ▲九時 一〇分—九時一九分 佛法僧を聽く

▲○柳崖 同 野中智惠子 ▲○行燈의그늘 同 中村元 ▲도아카ー텐(釜山府)野田省之 ▲暖爐 カーテン(同)同 ▲○机掛(同)岡本道子 ▲鏡盤配面(木浦府)文在惠 ▲○카ー텐(京城府)孫英子 ▲衣裳箪笥(同) 金榮柱 ▲○應接台(同) 朴榮熙 ▲丸鮮膳(同)同 ▲欅長方八角應接台(京城府)瀬尾孝正 ▲文庫(同)金鍾南 ▲四季의테ー브ー바(同)鎌田綾子 ▲○山羊과코ー롯(全南光州府)吉田淸子 ▲○西洋朴梅보이는차바(同) 田中信子 ▲柘榴

色鉛筆

예날 금니가아주유행될때는 생니를 부서처가지고까지 금으로 떼질을 하는 버릇이 잇섯다 ▲그러고는 공연히입을 보여주시하고 히히웃는 꼴을 각금보앗다 ▲지금도 이비슷한 다로운이 또만히보다 예를들면 금화(金貨)를 겨차고 다니는것도 그런종류요 백금반지를 껴도공연히이리 봅는데 세개네개식 바는다던가 만년필가튼데 금고리를 몃개식 부친다던가▲그외에옷갑든풍이며 행장이며 여러가지방면으로 이런것을 볼수잇는데 ▲대개밀요 잘하는 물품을갓지고 것치레를 이상의 사람에 한해서마음속에 가진것이 무어이가가의심되는법

京城實業野球戰績

京城實業野球리ー그…鐵道對府廳 遞信對殖銀의 各一回戰은 二十九日午後一時四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한바 다음과 가튼「스코어」로 鐵道와 遞信이 各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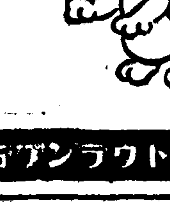
鐵道 1 0 2 0 0 0 0 1 0 4
府廳 0 0 0 1 4 1 0 0 0 6
◇府廳投手=(鐵道)東—佐藤(京電)高木—中山

遞信 1 1 3 0 0 0 0 0 0 5
殖銀 1 0 1 0 0 0 0 0 0 2
◇殖銀投手=(殖銀)人島—伊藤(遞信)朴賢明—竹永

釜山府大橋通一丁目六五
本報慶南支社
電話二八九七番

빅타ー
알녀주세요
블루ー스
萬人公認의 黃琴心獨特의新操作!
黃琴心

옷깃에숨어드는 저달빗치여 그리운우리님의 더운심장에 눈물저온사정을 알녀주세요 알녀주세요
1、『알녀주세요』 2、저도몰라요 3、未練의꿈 4、알녀주세요
여러분의 黃琴心알범에 빠진것은업슴니가

トウラワント・齒磨ワンラウト・鹼石ンプラウト
齒刷子・トウランプ

猫의目
괭이미ー쨩의 눈瞳子가요지음저어젓다 밝은電球를 쓰는까닭이겟죠
明るい日本一の標準電球 トウ 明視ランプ
プンラウト 店理連
D—14

百日咳에 고데스 コデス
急告

빈대
빈대로고생하시는분은 경성서대문의 출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유명한 박멸약을 즉시 보내드림니다 인제는박멸되엇습니다
지방송료 대선 삼오전 시분 삼십전 열분 일원
경성서대문 선거신성당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電話光三四、三四九九番

山葉オルガン
兒童들도곳칠수잇는

音階速習器付 山葉オルガン 定價金四拾圓
가다로구進星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電本局二四八五

傳染病은 不注意로! 健全한胃腸에 傳染病不浸 健全한胃腸은 アリチン으로 腸チフス豫防은 アリチン으로
肺病豫防에는 アリチンA로!
包裝價格 A號 百球 三、〇〇 二百五十球七、〇〇 B號 百球 三、四〇 二百五十球八、〇〇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洋藥部

換節期는危險하다

淋疾
小便보기가 迅速히 好轉하는것—淋疾排膿等의 自覺症狀이 速히 消失하는것—淋疾性諸病의 治癒가 速함은 本劑의 最大特徵임니다
ネオカルゴノーゲン 네오가루고노ー겐
三〇 一〇〇錠 〃 五〇錠
大阪·東京 岡逸商店

祝 紙齡六千號 革新五周年 記念 朝鮮鄕土文化調査

ドクトリ丸 도구도리환

体毒에 (체독에)

體內의 諸毒을업새고
便通을조케함

主注
◎黴毒(매독)◎瘡毒(창병)◎胎毒◎瘰病◎下疳◎가렷픔◎骨痛◎헌데◎雁瘡◎가려움◎頭顔鼻의發疹◎楊梅瘡◎頑癬◎五痔◎黴毒痛(所謂痲痛)
△便通이나쁜사람은持藥으로서毎日一包式服用해주십시요 但十歲以下는胎毒업새는小兒ドクトリ丸을쓰십시요

藥價 五十錢、一圓 二圓、三圓 五圓、十圓
各地藥店에잇슴

商標

本舖 大阪市西ノ町 本林丁子堂 振替大阪一五一二番

◎頭髮은日常손질하는것이緊切합니다!

호르몬効果가顯著! 검고 潤이나는 머리와그도드록한빗자우! キンツル의整髮美가얼마나당신의모양을더나타낼것인가!

●毛生호르몬·코레스테린配合

金鶴 긴쓰루
ポマード 포마-드

本舖 株式會社 野村商店

モルヒネ中毒 最新治療劑

福 モナール 모나-루

모르히네中毒症가튼 原因이一定하잔은것에 單味藥物을쓸지라도 効力업는경우가 적지안은것 또는 그러한 治療劑에 習慣으로된結果 効力이 充分하잔어서 辛苦하는것은 日常 經驗하는바이겟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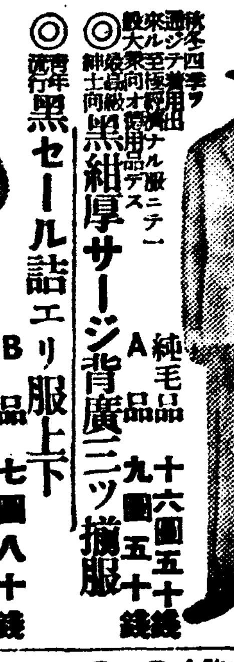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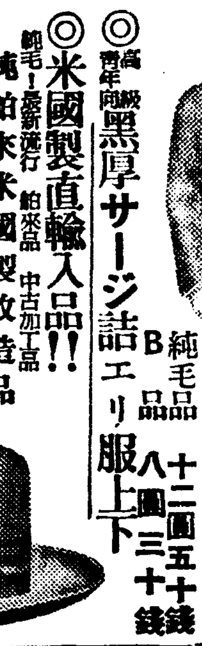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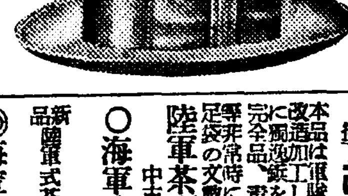
이러할때에 福모나-루와가튼 綜合的으로 奏効하는藥劑를 골라주십시요

福모나-루는 迅速하게獨特한解毒作用을 營爲하야 저절수업는 禁斷現象의苦痛을 長時間抑制하고生成된 異常物質의 排出을促進해서 常用麻痺藥의 欲求量을減하고 心身爽快、食慾恢復安靜安眠을주어 迅速히中毒症狀을 減退세키는同時에이러한 中毒에依한 各種의隨伴症狀까지도 好轉시켜서健康의恢復을 빠르게 합니다

(文獻欣呈)

適應症
モルヒネ、ヘロイン、阿片
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
其他同類似麻藥の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大家向洋服類大奉仕

◎最新流行 黒紺セール背廣三ツ揃服
A品 八圓九十錢
純毛品 十三圓八十錢

◎紳士向高級 黒紺厚サージ背廣三ツ揃服 (秋冬四季ヲ通ジテ着用出來ル至極便利ナル服ニテ一般大衆向オ徳用品デス)
純毛品 十六圓五十錢
A品 九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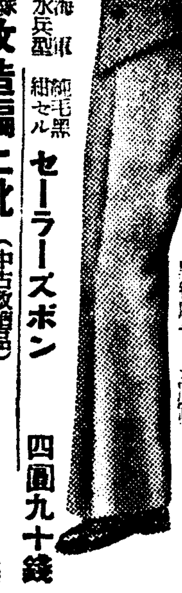
◎青年流行 黒セール詰エリ服上下
B品 七圓八十錢
純毛品 十一圓五十錢

◎高級青年向 黒厚サージ詰エリ服上下
純毛品 十二圓五十錢
B品 八圓三十錢

◎米國製直輸入品!!
純舶來米國製改造品
舶毛!最新流行 舶來品 中古加工品
米國製中折帽子 春夏向
ベロアー帽子 A品 四圓九十錢 B品 三圓三十錢 色目…茶、黒、鼠
ソフトフワー帽子 A品 四圓五十錢 B品 三圓九十錢 色目…茶、黒、鼠
驚くなかれ 新品なれば廿圓内外の舶來品を修正し僅か五分一の安價で愛賣致します
本品は米國より直輸入の舶來中折帽子にて高級クリーニングを加へ型は最新流行品純高級品新品なれば廿圓以上の品

◎最新流行 フレンチ型本革靴
短靴 六圓八十錢
編上靴 七圓二十錢

◎紳士高級向 ブル型本革靴
編上靴 七圓三十錢
短靴 六圓八十錢



拂下品 中古加工品の大安賣

◎海軍型防水布外套
本品は海軍防水布型の新品同樣にて極厚地黒ゴム引、二重袖 防水用に最適品、大好評
拂下黒厚地ゴム引 一等品 三圓九十錢

◎鐵道省拂下品 黒防水布外套 (中古品)
一等品一枚付 二圓九十錢

◎海軍水兵型 セーラーズボン
新品(黒紺セル地) 三圓五十錢

●海軍水兵型 純毛黒紺セル セーラーズボン
黒紺厚サージ同値 四圓九十錢

◎軍隊拂下 改造編上靴 (中古改造品)
本品は軍隊拂下中古靴を改造加工し、底は牛張革に鋲を打込み丈夫向完全品、背訓用、作業用、非常時に大好評品 足袋の文數を御知らせ下さい。

陸軍茶利革編上靴中古改造
中古改造品一足 三圓二十錢

○海軍陸戰隊用黒革編上靴
特品一足 三圓八十錢

新品 陸軍式茶革編上靴 八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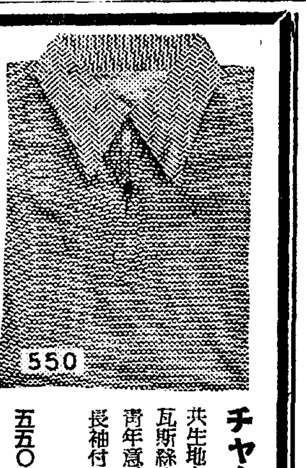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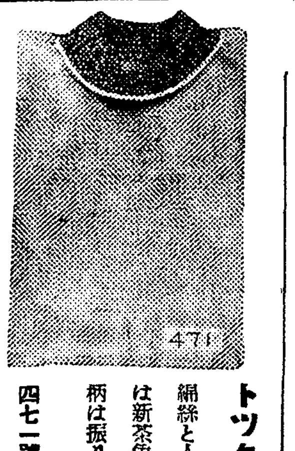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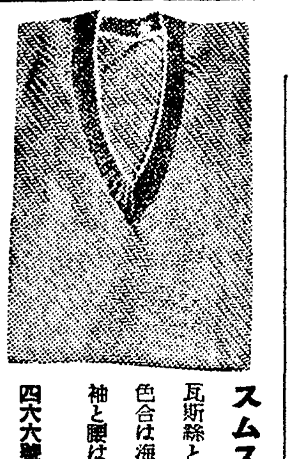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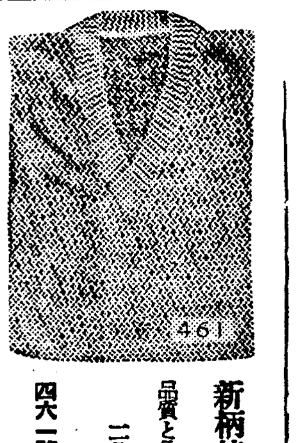
◎海軍拂下水兵型 黒革短靴 (中古改造品)

◎海軍水兵短靴
特品一足 三圓五十錢
本品は海軍拂下の水兵短靴を改造加工したる丈夫向短靴にて大衆向御用品(足袋文數お知らせ下さる)

◎女學生短靴(中古改造品)
一足 三圓二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御問屋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二五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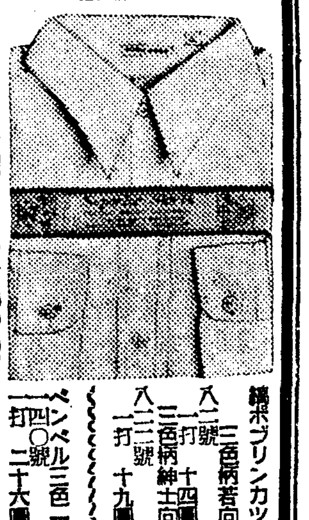
チヤク金具付柄アンダー
共生地カツター衿形スムス織 瓦斯絲人絹交織高級品横柄 青年高氣向二色取合セ 長袖付腰袖共ダブルゴム織 メリヤス付
五五〇號 一打 金十二圓八十錢 一枚 金一圓二十錢

トツクリ新柄アンダー
絹絲と人絹と交織メリヤス高尚品色合は新茶色・グリン色二種 柄は振り柄─袖腰ゴム織
四七一號 一打 金十圓 一枚 金九十錢

スムス織新柄アンダー
瓦斯絲と人絹交織の意氣柄 色合は海老茶と紺─最新色 袖と腰はダブルゴム織メリヤス付
四六六號 一打 金十一圓 一枚 金一圓

新柄特製アンダー
品質と色柄で賣れる品 二色取合
四六一號 一打 金八圓五十錢 一枚 金七十錢

特製メリヤス スプリングシヤツ
三〇綿柄小學生スプリング 五一二號 大中小三段小學生用 一打 金二圓二十五錢
三〇綿柄大人スプリング 五四五號 大人一打 金三圓八十錢
注文は半打以上



縞ポプリンカツター
八二號 三色柄着向 一打 十四圓九十錢
八二三號 三色柄紳士向 一打 十九圓五十錢
一四〇號 ペンベル三色一枚函入 一打 二十六圓五十錢

純白のノータイシヤツ
純白キヤラコノータイ 八六一長袖 一打 十四圓五十錢
純白ポプリンノータイ 八六五號長袖 一打 十八圓五十錢

柄メリヤスアンダー
カツター衿付新柄三色 腰ゴム織
四八四號 一打 十一圓八十錢

春向の青年向詰衿服發賣

一八號 工印實用セル詰衿上下服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なる(裏ナシ同價)
詰衿上下組 一着 金七圓

一九號 特製黒セル詰衿上下服
品質仕立共最優秀品裏付 金ボタン付(裏ナシ同價)
詰衿上下組 一着 金十一圓八十錢

荷造は當方負擔費は貴方持に願ひます 樂番で御注文下されば直ぐ代金引換にて御送附申上げます (但し五十圓以上二割御手附御送附)

名古屋市千種區千種通り (今池電停南)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電話四八二九番 振替名古屋八二九番

安産のために

ワダカルシユーム錠 와다칼슘정

片瀨醫學博士監査
横林醫學博士推奬

장차日本을걸머지고 나설 애기들어다

굿센애기는든든한母體로부터 든든한母體는 와다칼슘의攝取로 어들수잇다 그래서胎兒의發育은助成되여 一路安産의 코-스를것는다!

無代進呈!
「安産メーター」
大阪帝國大學教授醫學博士 片瀨淡氏著
「安産のために」

大阪市東區道修町 和田卯助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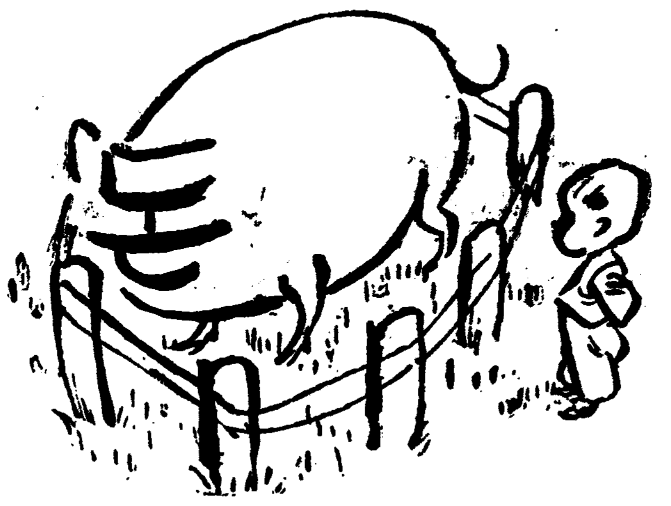
우·리·차·지

자라는돈

「군것질해 업새는 돈을 모아보렴 나중에 큰돈이 되지안나。인제 큰돈이 되구보면 가만히 두어도 제절로 자꾸 자꾸 커간다」

「그럼 나 돈좀 주세요 안 사먹구 두엇다가 열흘후에 드릴께」

([illegible] 한경희)



家庭

비누쓰는데비결

줄기 쉬운 세루와비단빨래에는 비누보다약품이조와요

우리가 매일하다시피하는 빨래는 쉬운것가트나 사실 감을 상치안코 잘빨여면 어려운노릇입니다。

대개 빨내는 전에부터해내려오는 방법이잇스니까 그저언제나 한모양으로 빠는게보통이지만 할수잇는대로 감을상하지안코 쉽고 깨끗하게 빠는법을 항상연구하고 배워야할게안입니까。

우리네가정에서 빨내하는것을 보면 마른빨내를 물에다 집어너허가지고 당장에 빨내비누를 썩썩 문지러서 물에나 빨내판에대고 비빕니다。그래가지고양잿물을 너코 삶습니다。

빨내는 의레이러케하는법이거니하고 별로 더조흔방법을 알려고도안는데 이러케하면 아모래도 옷감이 상합니다。더구나 양잿물을 만히너흐면 일껏 장만한옷감이 세물만입으면 두볼밧게 못입게되니 그런딱한일이 어데잇습니까。

그나마 시골가튼데서는 비누를 얼마쓰지안코 그저 양잿물을 처너허서 삶는데가 만흔데 할수잇스면 비누에 애머리를할 뜸이 빨아가지고 다시 비누물에 삶아내도 빨내가 깨끗할뿐 만아니라 감도 덜상합니다。아마 세계에서 우리처럼 빨내에 양잿물을 넛는데는 도업슬것입니다。

그러니 양잿물을 넛는것은할것도업고 비누를 쓰는데도잘못하면 감을상하고 때도 잘지지안습니다。

마른빨내를 물에다 잠아너흐면서 곳구든비누를 문질너가지고 비비는건 비누의 작용을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야 때무든데 비누를 발려두면 때가녹아서 업세지는건사실입니다。그러나 비누의 효력을 백퍼-센트로 내자면 빨내에다 비누를 무처두고서 상당한 시간을 제내야합니다。

힘들내는 눅인 비누물에 빨면칠신쉽고도 깨끗해지지만 그러치안는다면 몬저빨내를 물에담거서 한시간쯤 두엇다가 다시 비누를 칠해서 또 반시간쯤두엇다 빨어야합니다。비누를 빨내에대고 박박 문질러 빨면비누가 옷감에 꼭배여서 말근물에 헹구어도 잘빠지지안코 그대로남어잇서 감을상하기쉽습니다。

그다음엔 가루비누는 풀니기는 잘하나 그대신 몹씨헤퍼서 흠입니다。비누는 필요이상으로풀면 그러라고 빨내가 더잘되는것이아니고 때가빠지리만치만해지면 남어지는 그냥버리는것입니다。그러므로 웬만한 빨래한가지면 가루비누를 차ㅅ수가락으로 하나쯤넛는것이조코 어여상 더너흐면 되려감을상합니다

비누의구별=한가지 비누로써 모든빨내나 다하는것은 한가지의 약을가지고 이병저병 만병통치를 하는것과갓습니다。

그러므로 빨내하는데는 비누의종류를 잘구별해야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빨내의구별도 되는것입니다。즉 비단, 세루등과 무명 뵈등의 구별입니다。어를테면 세루, 비단빨내에쓰는비누와 무명이나 그밧게 다른감들을 빠는비누와 빨내법이 다르고 법이 다르다는것입니다。

비단이나세루와같이 동물성섬유(纖維)로된감은 마루세루비누나또는 붕사가루가튼것이 조코 무명이나 뵈와가티 식물성섬유로된것은 알카리가 좀잇는보통비누라도 괜찬습니다。

비누가온대 마루세루 비누라는것은 옛날 불난서말세이유에서 처음으로 만든것인데 지금은 어듸서 만든것이나 조흔비누는 모두 마루세루비누라고불느게됏습니다。

본래 정말 마루세루비누는텰의 지방이 오리-부유로서 알카리가 업기때문에 모직물이나 명주빨내에는 적당합니다。

마루세루를 제하고 다른비누는 대개 질이 [illegible] 비단 명주가튼감은 [illegible] 그밧게 보통비누가운대도 아조 낫분것이잇는데 이런것은 때를 빼기는커녕 되려 여러가지 불용해물(不溶解物)을 무처노코맙니다。

가루비누도 조흔것은 첨에한번 덩어리비누로 만들엇다가 다시 가루로 만들지만 납분것은 첨부터 가루로만드는데 이런것은 감을상처서 못씀니다。

비단과 세루종류엔 마루세루비누가 제일조라고하는데 이밧게도 암모니아와 붕사말의 두가지 약품이잇습니다。

[illegible] 모직물종류는 암모니아가 조흔데 빨래하는방법은 따스한물 너되에 암모니아 [illegible] 떠러트려서 빨면 조흐나 [illegible] 지안허서조코 나쁜점은 감에 [illegible] 빠저서 [illegible]

그러므로 물든감은 암모니아에 빨지말고 붕사말(硼沙末)에 빨면 조흡니다。따스한물 두되에 붕사말을 찻수까락으로 두세쯤 너코 빱니다。

세루、인견、벰베르크、조세트、보-라종은 이방법으로 빨면아주좃습니다。

전등삭갓

헐기보다닥글일

우리네 가정에선 그릇이나그릇가지 세간은 흙씻고닥거 거두지만전등소제는 별로하지안습니다

그런데 전등다마거례 몬지가안는다든지 전등갓에 몬지가안저 더럽게되면 파 불빛이 절반밧게는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달에 두번은 비누물에 갓을 씻처야합니다。조금만 먼지를드리면 두배는 밝아지는데 그냥 컴컴하게할 까닭이잇습니까。

전등은 몬지를 그냥터는것보다 다 씻는것이 제일조습니다。

요새먹을만한 토마토푸라이

토마토는 익기전 [illegible] 토마도를 푸라이해서 음식을 만드는법입니다。

토마토를 껍데기채 동굴게썰어서 속에 씨와 물을빼고 메리켄가루를 무처서 그것을 다시 계란흰물에 너혓다가 끄내서또 밀가루를 무처 뜨거운 라-드에 너허서 지저냅니다。

그런데 지질때 뜨거운물에얼는해내지안흐면 속에서 물이나와서 겨례 씻은것이 죄다 떨어저 나갑니다。이러케 지저낸것은 접시에 담고 양배추썬것을 겻드립니다。

婦人見學團員募集

천중가절인 단오노리、금수강산의평양구경! 이명절에 강산을 아니보고 무엇하리。

집안의 잡시름 걱정、씻은듯이 이저버리고、날듯한 경장으로 떼지어가사이다。

더구나 가는길에 고려 옛 도읍이던 개성에내려 만월대、선죽교의 가지가지 명승고적을 한숨에구경하게되니 단이틀을허비해서 평생에못어들 구경이 이 어인 금상첨화고。

旅程

開城 ……… 六月一日

◇午前八時十二分京城驛發—同九時五十二分開城着

시내구경과 박물관、전매국、인삼밧을구경하고 선죽교며만월대며……하는유서 깊흔 고적과 명승을 고루고루 다 차저본뒤에 풍광이명미하고 수석조흔 곳에벌려노흔 대원유회장으로 가서자미나는노리를해가며 옛날 고려의서울 송도의하롯밤을 즐겁게보냅니다 그리고는午後六時二〇分에떠나 평양으로향합니다

平壤 ……… 六月二日

◇밤一〇時四二分평양에다어 하로밤을편히쉽니다 밝는날에는 금수강산의평양의 승지를 청류벽이니 모란봉이니 부벽루니 을밀대니 능나도니하는곳을 훑어보게 낫나치두루볼것입니다 그런다음에는 단오노리대운동회구경을흡족하고 나서 맑고 잔잔한 대동강물에 배를띄워노코 어어죽을 맛보면서 잠시 신선이될것한 감개를가저봅니다 그리고는午後二時十二分평양을떠나 밤九時五〇分에 서울에닷습니다

◇定員 一〇〇名 신청기한전이라도 정원이차면마감합니다。 會費 一〇圓

申請 五月三十一日正午까지 本社事業部로 會費를내고 申請을하시셔요▼申請을하신이상에는 어떠한일이잇거나 회비를차지못하기로합니다▼어린애는 절대로 밧지안습니다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愚氓 【43】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사랑과柳明玉(7)

최건영은 그모양으로 한참허 동안이나 서울서 놀다가 도라갓다。도라갈때 그는 화수보고 수히 한번 안악으로 나려오라고—그래 가치 장수산구경을 가자고 말하엿다。화수는 틈이나 되거든—하고 대답하엿다。

「정말 꼭 와야 해? 괜니 기다리게만 하지 말구。」

최는 화수에게 몃번이나 이처럼 다짐을 하엿스나 여메잇 말로도 화수와 가티 나려오라고는 하지 안햇다。상당히 열을 가지고 잇는 이 여자에게 대하여 화수가 별로 이러타할 생각도 품고 잇지 안흔것을 보고 은근히 마음에 조하든 최건영은 이제 도라오는 길로 화수를 집으로 나려오래서 그에게 진하게 할말이 잇섯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누이 옥전이에게 대한 이야기다。신천온천서 처음으로 화수를 대하엿슬때 그는 벌서 막연하게나마 화수와 처남매부의관계를 맺저도 조흘듯십게 생각하엿던것이지만 이번에 서울에서 며칠 묵고 잇는사이에 그 생각은 좀더 간절하여젓다。

그러나 물론 그는 아직 입박게 내여 그것을 아모에게도 말한일이 업다。그러니 화수가 그속을 모른다。명옥이 또한 알턱이 업다。만약 알엇다면 화수보다도 명옥이가 오히려 좀더 놀랏슬것이다。그러나 그는 최의 은근한 심사를 몰랏다。은근한 심사커녕은 위선 그에게 누이동생이 잇다는것조차 몰랏다。더구나 그 누이동생이 올에 나이 열일곱인 아리따운처녀이라는것을 몰랏다。그러한 선한 파일에도 비길 소녀가 자기와 가티 남자를 알만큼은다알고난 설흔대살짜리 기생보다는 젊은 화수의 사랑의대상이 되기에 훨신더 적합한것은 다시 이를필요도 업슬것이다。그러나 명옥은 그것을몰랏다。그러기에 그는 화수가정작 안악을 향하여 떠낫슬때에도 마음속에 아모런 불안을느끼지는 안햇다。

만약 알주 잇섯다면?……그럼 응당 그의마음이 편안치는 안헛을것이다。그러나 물론 그뿐이다。알엇다 하더라도 그로서 어찌 한다는 도리가 잇슬 터업스니까。

명옥은『인연』이란 하는것을 꾀 밋고 잇는 여자엿다。자기가 화수와 신천온천에서 맛난것도 인연이러니와 둘이 모다 가튼 서울안에 살고 잇다는것도 인연이 아닐수 업슬것이다。만약 아모리 오래서 서로 알수 잇섯다 하더라도 만약 사는곳이 달럿다 하면 두사람의 사이가 이만치나 가까워지기는 어려웟슬것이다。물론 남녀간의 교제란는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별 진전한 전개는 업다。업지만 아직 유명옥은 희망을 가지고 잇다。그는 언제고 화수가 자기의 진정을 알어줄 날이 잇스리라 생각하고 잇섯다。자기의 사랑을 용납하여줄 날이 여제 마땅히 올것이라 밋고 잇섯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날이영구히 오지 안는다 하면?——

그것은 오직 생각하여 보기도 두려운 일이다。명옥에게 그것업는 슬픔을 준다。그러나 어찌 할수 업는일이다。인력이 미칠수 업는일이다。모두 하늘이 정하여 노흔 일이다。자기는 화수와 그처럼 서로 알고 동무로 지내게 나 됏고 만한 인연이 엿던고건 넘칠바게 업는 일이 아니겟느냐?

그러나 만약 자기와 화수사이에 참말 인연이 잇는것이라면, 나이가 열에쇠 틀리다는 것 쯤이야 아모것도 아닐것이다。기생퇴물이라는게 문제될리 업다。모두 하늘이 정하여 노신 일이다……

명옥은 그러케 생각하고 잇섯다。그러케 생각할수 잇섯든까닭에 그는 결코 화수에게 대하여 초조하여 한다던 그러치 안햇다。말하자면 명옥은 아직 화수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일조차 업다。오직 그는 마음을 정성스리 하여 자기의 사랑이 상대자에게 통할 날을 기다리고 잇섯다。

그러나 화수는 명옥의 생각이 그처럼이나 간절한것인줄을 몰랏다。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지 안악으로 나려오라한 최건영이의 마음속도 모른다。모른기에 그는 두번이나 독촉하는 편지를 최에게서 밧고도 태연하게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잇섯고 이제 세번째 편지를 밧고야 작。

(그러케까지 오라니 그럼 어디 놀러 나설까?……)

역시 무심한 마음으로 화수는 집을 나섯던것이다。그것을 또 류명옥은 [illegible] 구경역까지 배웅을 나갓다。그러한 그들의 모양을 [illegible] 그들이 못맛헛스니 알리 업다。

御老人の爲に

老人의 唾液과健康에對하야

○家族되시는분도左記를一讀하시고注意해주십시요

老人의身體에는 含水炭素라는 榮養素가缺乏하기쉽습니다

含水炭素는 主로精力(에네루기ー)이되는 榮養素입니다마는이것은 여러가지形體로되여잇고 그中의하나로澱粉이라는것이잇습니다 澱粉은우리의主食—米、麥 광等에만히含有하고잇습니다。그런대老人은이러한食物을젊은이들과同量으로攝取할지라도、그中의澱粉을젊은이와가티 充分히身體를爲하야 榮養이되게하기는 困難합니다、왜그러냐하면 우리들의唾液中에는뿌찌아린이라는 酵素가含有해잇서서 이것이澱粉을糖化(消化)하는 役割을하지마는이뿌찌아린이 老人의唾液中에는적은것입니다、어떤學者의 調査한바에依하면 常時의 唾液一瓦中의뿌찌아린 含有量은

青年은 一〇・一五單位 老人은 〇・三〇三單位

라는것입니다。이러한理由로 老人은、榮養上、含水炭素의缺乏을招來키쉬운것으로서、이狀態가 甚해지고、他의榮養素(脂肪等)와의均衡이顯著히 破壞되엿슬경우에는 드디어病이되는 일이잇는대 設使큰病은 안된다할지라도 날로精力이不足하야、老衰一路로 쪼끼게되는것이事實입니다。

그런대、이것을補充할것으로勸하고십흔것은、食前又는食後에 良質葡萄酒——赤玉ポートワイン을 잡수실것입니다。赤玉ポートワイン은唾液의分泌을促進하는等의作用도잇지마는 老人에게잇서서、가장重寶한것은 그成分中의 葡萄糖과 果糖은 含水炭素에屬하는 榮養素이며 또한 이것은 含水炭素中、가장優秀純粹한性質의것으로서 攝取하면 뿌찌아린의作用을 必要로하지안코 또其他의消化作用을기다릴것도업시 곳 腸으로吸收되여서 精力이된다는것입니다。말하자면이것은 이미消化가된것이라고해도조코 그대로 곳 몸에利로운 榮養素인것입니다 늙으면서 더욱精精하시려면은 期於코이러한 榮養素가 豐富한 赤玉ポートワイン을 補助食品으로서 愛用해주시옵기懇願하나이다

美味 滋養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토와인

鄕土文化를 찾아서

第四班 濟州島行

濟州島와 書籍

方鍾鉉

지나간 四月초승부터 十數日동안 나는 鄕土文化의 資料를 蒐集하고저하야 山도 넘고 물도 건너 멀리 南海海上의 仙府인 濟州島를 向하고 떠낫든것이다

그리하야 漢拏山의 雲霧下에 나그네의 길을 들어노흔지 數日되는날 나는 濟州邑에서 書籍의 收藏家로 이름이 잇다는 朴熊式氏家로 찾게되엇다 李退溪의 書를 寫하야 金秋史의 書帖과 屛風이며 여러名人의 書畫가 만히 珍藏되엇고 佛像도 여기저기 잇는것이 만흔것하나 내에게는 여유를 못가진것이 적지안케 유감스러웟다

二百餘首의 漢詩를 실은 闕谷詩集을 맛고 그內容이 濟州十景에까지 미치엇는것으로보아서 이책을 어떠라고 評할수는 업스나 그러나 내가 몰족 하고잇는 일에 도움이 될것만흔 곳이거되어 珍藏을 구경한것과 아울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리를 급하게 일어낫다

書冊의 말이 낫스니 朝天에서 千卷에 가까운 書籍을 봉거奮記하고저한다 今年 農業學校를 卒業햇다고하는 金壽煥君집에는 여러代를 두고 모아온 書籍들이 만히 잇섯는데 손쉽게 볼수잇는 곳에 노혀잇지안코 방에 장하여 둔것을 서재로 내여놋키 세울것을 갑작이 남에게 보힐것이 아니매 이것이 미안해하는바이다.

六月創作一人一評 (二)

映畫와文學의藝術的分岐

安夕影

씨나리오 柳致眞作 『圖生錄』 ―朝光―

近日에 씨나리오로써 漢江, 無情, 圖生錄이 發表되엿다 옛날에도 數篇의 씨나리오가 發表되엿든일이잇섯스나 『나그네』以後로 朝鮮映畫의評價가 달려진이때에 上의三篇의 씨나리오는 一般의 關心을 끌리하게 되엿고 따라서 씨나리오文學의 貧困을 늣기지안흘수업는 朝鮮映畫界에서 以上의三篇의 씨나리오는 한개의 試金石으로 삼지안흘수 업는일이다

『漢江』은 이미映畫化되여 우리들의 눈을거처갓거니와 無情은 方今製作中이므로 그씨나리오로써無情이 朝鮮映畫에 그무슨 波及을주고 지나갈것이며 圖生錄은 이미 製圖까지끗낫다하므로未久에 우리들은 自由로운觀賞을 할수잇게될것이다

『漢江』은作者의말과가티 漢江이보히는 自然과 그自然속에서사러가는 人間을그린 말하자면 記錄映畫일것이다 그러나 이一個의 風景畫는 美學的要素의缺乏을 보혀주지안엇는가 생각되며 『無情』은文藝映畫의 否定을말해야 할이時期에서 새로운映畫的感覺을 試驗해야할줄아는데 脚色者의말이 發表後記에 이씨나리오는 映畫의 完全한 設計圖가 아니라 햇슴으로 映畫化된뒤에 注目되려니와 圖生錄은 朝鮮新劇界에 劇作家로 演出家로 名聲이잇는 柳致眞氏의 씨나리오로써 處女作인만큼 더구나 이映畫도 論議될것으로 생각한다

씨나리오作家는 먼저 필름의 制約을 充分히 認識하고 映畫의 本質的生命을 把握해야한다는 말과가티 舞臺劇的인 表現과 映畫的表現이 다르다는말은 이 『틀』을通해서의 모든 制約을 認識해야만 된다는뜻인줄생각한다

이런말을 너무도 새삼스럽게하는늣김이잇스나 過去나 지금이나 모든混亂가운데서 製作된 朝鮮映畫에잇서서 어느것하나도 映畫의 本質인 이 씨나리오가 필름美學을 重要視한바가업섯스므로 이圖生錄에잇서서만 말하는것이아니라 아프로의 우리映畫製作者 或은 씨나리오作家들의 關心은 여기에잇슬줄안다는 말이다.

映畫의 內容은 文學的인것만이되여서는아된다 映畫의 그스토리라는것을 필름과의 連續에서도 構成되여야한다 視覺的인 말하자면 움직이는 繪畫인 필름의

藝

術을 十分으로한것이 無聲映畫時代엿고 지금은 그우에 聽覺藝術을 附加한것이 토-키-다. 여기서는 文學的인것을 拒否해도 조흘만큼 씨나리오文學이란것은 필름으로부터 獨立해도조치만 필름의 美學에서 獨立해서는 안되는것으로 생각한다.

×

이圖生錄은 文學的인 魅力을 가지고 잇기때문에 讀物로써의成果를 보혓슬것이로되 이것이 映畫의씨나리오로써, 아프로의씨나리오文學으로써 新機軸이 되리라고하기에는 여러가지點을 內包하고잇다고 생각된다 여기잇서서 表現에잇서서 一一히 그內容이라든가 例擧하고 討議할紙面이업거니와 大體로 이씨나리오의 本質的 生命을 드라마(舞臺的인)에두엇고 이舞臺的인 束縛에서 確實히 離脫하지 못한 늣김이잇고 따라서 映畫的인리듬이 엷은늣김이잇다

또한 映畫가 絶對로音樂이아니지만 그表現에잇서서는 多分키 音樂的인데가 잇는것이映畫의 魅力인것도가트며

音

씨나리오 圖生錄이 永遠히 文獻으로써 남을作品이라하드래도 混聲的視覺藝術이 되여야하는映畫로서 印象이기픈이잇서야될것이 稀薄하게될 늣김이업슬까?

어쨋든 過去에도 柳氏는 人生을알고 劇作을 햇스며 이번 씨나리오圖生錄도 人生을알고 構成한것일진대 아프로 씨나리오作家로서도 信賴할분이며 이圖生錄에 잇서서 柳氏의 그힘과 過去朝鮮映畫의 起伏을가치해온 尹逢春氏의 演出과 名流諸氏의 出演으로 完成되엿다함으로 期待되는 作品이되엿음을 말하는다

(完)

뒷골목

◇平壤雜記帖◇ (三)

金南天

▲冷麵 (承前)

先酒後麵이란말이 우리시골에잇다. 소갈비나 구어서 燒酒를 마신뒤에 얼벌벌하니 고추를 처 동치미국에 마러노흔 冷麵을 먹는맛이란 지내보지안혼사람으론 想像할수도업는 기막히는 珍味다.

冷麵은 어느季節에 먹는 음식일가? 平壤이나 平安道一帶에선 점심이나 밤참은 언제나 冷麵이니 四節을 가리지안코 언제든지 이것을 愛好하는 셈이다. 이지음 中毒事件이 各處에서 이러난 관련으로 여름에 冷麵을 먹는것을 都會地에선 끄리지안는가한다. 나自身도 여름에서울서 冷麵을 먹을때엔 『고기가 변하지 안헛나』를 다란히다저보고 『국거리가 상하지안헛나』를 여러번 물어본뒤에도 安心할수업서 相當한 警惕을 늣기며 冷麵을 대하게된다.

그러나 시골서는 겨울에는 冷麵이나 어복장국을 만히 먹는다. 웬만한국수맛을아는사람은 嚴冬에 오히려 冷麵맛을 享樂한다. 허물허물한 찌르르한 『동치미』국에 국수를말어놋코 도야지비게가튼 휘잔디쪽우에 『다대기』를 얹즌것을훅훅 되리키는맛이란 아닌게아니라 다른季節에선 차저볼길이업는 豪爽한味覺이다.

언젠가 우리시골서 다섯사람이 내기화투를하고 밤참을注文할때에 그中한사람이 五十錢에 한적이잇섯다. 그래드니 그들은 아무말도안하고 자리를찻다. 헌하니 바그르나가는것을일어재고 『아즈바니 젊은놈이 미처실수햇으니 놀려보아주시오』해서 겨우 怒염을 푸른일이잇다.

하다. 먹고나서 일러실물이업스매 마치故鄕을 일흔것가티 쓸쓸하고 서운하엿다. 冷麵파인 연잇는 語彙로서 자미잇는것이 한둘이 아닌게다. 『전동치미』 『다대기』 『수원』 『갈ᄅ』 『생저리』 『맛드린』 ――그러나 『平壤주』란말처럼 우숩고 자미나는 말도 드물것이다. 『못앗주』란 서울말로 直譯하면 『못고주』다

서울돈二十五錢에 平壤 十五錢이니 말할것도업거니와 어떤것은 서울것만 못한것도 잇섯다. 시골와서 無限十數곱을 먹엇스나 쟁의고기를 求할길이 업스매 국수맛으로 일우다.

漢詩

題 梨花 押 香 桐岡 考選

佳作之五 江原道平康邑 弗律子

淡粧素質出群芳
帶雨和風倚短墻
紅杏碧桃難售色
明珠白璧頓生香
蕭寺春殘女心惱
空欄月上客懷長
愛惜非徒觀覽美
結成珍實賽瓊漿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新刊紹介

▲春風萬夜 (前篇小說) 咸大勳著 發賣及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三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八十錢

▲農民生活 五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新世紀 第十二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八〇 新世紀社 振替京城二七〇〇四番 定價十五錢

▲活泉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教會聖潔教會出版部 振替京城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基督敎報 第一六一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六錢

고양이

(小品) (四)

朴魯甲

우리집 안뜰에는 노란 병아리 대여섯마리가 매우어여쁘게 자라고 잇섯다.

요 몃해 전부로 서울에는 병아리장사가 번성하엿다. 길가에서 팔기도 하고 집집으로 가지고 다니며 팔기도 하는것이엇다.

보기에 어여쁜 것을 사랑스러워 사노는 사람들이만흔 모양이엇다.

그러나 어린것들이 어미가 업는 탓인지 잘기르기가 퍽 어려운 모양이엇다.

이것을 기르자면 공이드는것도 드는것 이려니와, 죽으면 또 수를 채워 사다 노코 사다 노코 잔돈푼도 꽤 드는것이엇다.

우리집 안뜰에 크는 놈들도 이와가튼 공이 든놈들이엇다.

어린놈들이 이 병아리를보면 조하하고 옥재도 끄끄 보채고 하면 울음을 그치고 밧기는 수가 만햇다.

이리하야 나날이 잘 자란 병아리가 어찌어찌하다가 세마리남고 넘어지는 낭패를 보앗다.

남은 세놈은 제법 꽁지가 돗고 차차 몸뎅이 나는듯도 하엿다. 이러케 어대로 나간다면 얼마 아니가서 제법 닭들이되리라고 미덧든 것이엇다.

가끔 제멋대로 놀도록내노키도 하엿지만 대개는가두어 키엇다.

고양이 놈이 이때도 가끔 뒤겨드므로 지붕으로 농실 다니지 안흔 것은아니엇다.

그러나 누구하나 가장가까운 이 이웃에 사는 이 고양이 놈이 이 병아리에 입맛을 다신다고는 생각지 안햇든 것이엇다.

사실 그때 그놈의 태도는 그럿것 가렷다.

물론 제버릇 그대로 밤 안되면 부엌으로 찬장 근처로 돌아 다니며 덜그럭 거린 것만은 사실이엇다.

그러나 깨끗한 부엌 문 다친 찬장 근처를 아모리 돌아 다녀야 저의 이웃집인 이집에서는 다만 한명 어 한조각 먹을 것을 엇지 못하엿슨 것이다. 그러므로 그놈이 밤중에 덜그럭 거리고 아모리 다녀야 제놈 축것 업스니 상관 업다는듯 내버려 두엇다.

거의밤마다 이 고양이놈은 거침새업시 이집안을 멋대로엇다.

하룻밤은 전파는 유달리 큰 소리가쿵 쿵 안 마루에서 들리엇다.

나는 문을 열엇다.

병아리 집이 거꾸로 바키엿다. 병아리소리가 들리엇다.

위선 아래로 나려 잘고는 비지 문이열리엇고 병아리 한마리가 온데 간데 업는 것이엇다.

소용 업는줄 번연히 알면서 동물을 가지고 집안 어두운 곳 곳을 무한 차저 보앗다.

이 고양이 놈은 백병업시 어엽븐 병아리 한마리를떠 고야 말엇다.

이 잃허버린 병아리 소리가 밤ᄉ 나의 방 남창 밧게 들리는듯도 하엿다.

그러나 지붕을 지나가지안호면 가볼수 업는 이 고양이의 소굴은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침해는 밧지 안햇다.

이 병아리를 잃허버린 이날 밤은 위지안이 잠들기 까지는 섭섭하엿든 것일게다.

이일이 잇은 그이튼날부터 병아리에 대한 원 집안의 주의는 비상하엿든 것이엇다.

나제란 대도 이 고양이놈이 빗죽만하면 소리를지르고 병아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몰아 들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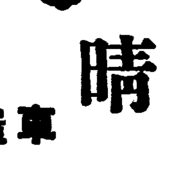
빼앗긴 것은 빼앗겻스니도 리가 억지만 다시야 빼앗기겟느냐! 단단히 미덧든 것이엇다.

그러나 나제야 밤에는 몰라도 그러나 제가 설마 어떠라! 햇든 것도 사실일게다.

晴曇 (十四)

本報 懸賞作家短篇리레ー

崔自鳴 作
根培 畫



가을이 왓다 그것은 수확의 가을이엇다.

구동집 늙으니는 신병으로 내 여름내 누엇다가 느진여름 가을이 오기전에 죽고 말엇다 그리케 애태우워 기달이든 비가 오랫일이나 계속해서 나리다가 끄치는날 야속 구동집노인의 장사가 잇섯다 낫조차대 여물것업시 누리케 죽어버린는 뜻으로 약령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유족사람들은 구동집노인의 장례 행렬을 딸어가 장례를 지내주엇다.

가을이면 해마다 윙ㅡ윙ㅡ윙ㅡ하고 세차게 들녀오는 벼훑는 기겟소리도 업는 유촌에서 한적으는듯 고요한속에서 한숨과 끼니 걱정으로 그날그날을 보낸다. 논두렁과 산에서 넘

하고 중얼거리면서 문밖에 걸처안저 한숨만 짓는지서울보고『게데이베 도지를 바칠게업는 김훈장네로서는 절한일이지…』 그러나 어데가 자리를 잡으면 소식이 잇겟지……』 이러케 외로해서 처서를 접으로 다리고 도라갓다.

유촌서는 한달을 헐근가리 양식걱정으로 지내는동안 어찌데 떠치는격으로 또하게 하엿든 암운이 저희하엿다.

그것은 배거덕이가 가을은 거회를 타서 못줄것때문에 자기에게 언제나 짜 필요한 유촌 도지를 살녀고 만석이한테 고 섭한다는 말이 돌녀왓기 때문이다. 이말을 들은 유촌사람들은 한꿋 당황해젓다. 한편으로는 그말의 여부를 알어보려고

녀이 이상해부터 배이든 새나 무도 단잠 자를 내엿것이 어시다. 『아니 세상에 그런이도 잇셔요?』

말하고는 하나도어섯다.

곱파 여름동안 모뒤엿든 벼가 가을장마를 지워서 유촌합 개울까지 베이고 끄친 이튼날이엇다.

친수가 유우장네집에 모든길에 김훈장네집을 들넛다가 뒤다 치수는 치서를 맛나자 『형님ㅡ 김훈장네가??』 하고는 말못을 못햇고 김훈장네 집앞으로 되집허간다. 치서가 김훈장네 사립을 들어서서 영문을 몰라 치수뒤를 좃차갓다.

는 영문을 몰라 치수뒤를 조 김훈장네는 가을때문에 개 의아하지 안흘수업섯다. 방안에 는 구석구석이 흐터저잇는헌의 복과 병조바 이외에는 사람업는 뷘집이엿다.

김훈장네는 가을때문에 대로저서 더 견데배이지못하고 지난밤사히에 치서와 양흔해둔 떨까지 다리고 밤도망을 처든 것이다.

『그럼 서문이까지?……』

치서는 한마디 붉으짓고 실망과 분에겨워 말못을 몰랏다. 그모양을 한참보고섯든 치수는

『꼴 만주나 갈까보다고 하드니 기어히 떠나고말엇구먼!』

차지어를 성천에서 들여 보냈다.

『아니 세상에 그런이도 잇셔요?』

『유우장은 자리를 못잡고 서성대며 중얼거린다. 『어드런제 여름에 나갓드래매 말이 시원게 안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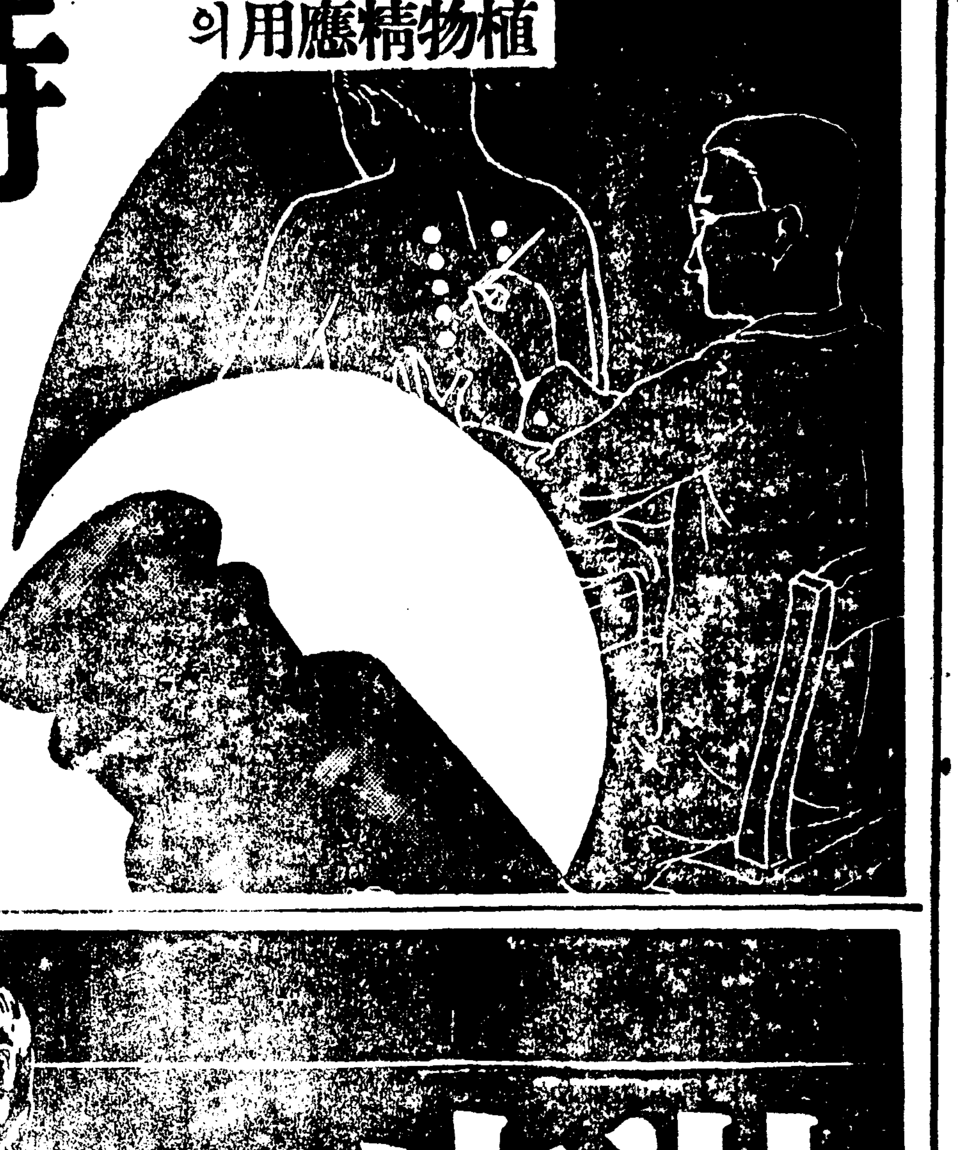
『설마 만석이뿐야 그렇수엿슬 바라… 하여튼 최원에게 들녀 본길도 모르고 더 바지런 어안이 벙벙하여 굼 답답하게 마조안저서 그이상 말도 더 못하고 최권이 돌아오기만 기다렷다.

『그들은 그렇이 햇어. 무근지 몰에 들어잇는 처권에는 도 라오는대로

『직접 형을맛나 물으닛까 저 우리도 물하거에 일만한것 에 수소문해보앗는데 제일인 듯 십허요!』

『아ㅡ그럼 정말이야!』 하고 굼이차게 보고한다.

그들은 그렇이 행여 무근지 설이기를바라다가 거짓이 안인 줄 알게되자 가만이 쉬울해젓 다. 누구보다도 유촌서는 그말 을못는당장에 머리를 차떼고를 기까지햇다.



약쑥의偉效와 植物호르몬

灸는 熱로써細胞를刺戟하고 또 약쑥의藥效를 皮膚에서 浸透시켜서 全身의機能을促進하고 白血球를 增加하며 抗病力을增加 세키는療法입니다 이약쑥은 무엇으로 만든것인가하면 누구나 다알고잇는 쑥입니다

쑥은 요지음山野에 드러서기만하면 얼마든지잇는대 그精分을灸의 效力으로 證明하는바와가티 非常한藥效가잇서서 漢藥中에서도 傑出한것이라고까지하며 特히下熱劑로 使用하면하로밤에면 回復한다고합니다

獨逸서는 近間漢藥의 純分을 抽出해서 新藥을만들고 日本等地에서도 輸出하고잇스나 漢藥의精分을 말할때이저서는안될것으로 最近發見된 植物호르몬이 잇습니다 灸는外部에서 細胞에 刺戟을주지마는 植物호르몬을內服할 경우는 體內에서 細胞를强化하고 또 皮膚를태울必要가업습니다 이植物호르몬에 强力한 酵素와 動物호르몬을 加한것이 지금評判인 ネオネオギー라는 特殊藥입니다

어면病일지라도ㅡ食慾 急進을곳알게된다

强壯藥、胃腸藥、結核藥類는 幾千種이라고할만치잇지마는 그中에서特히 ネオネオギー가評判이되여잇는것은 그作用이 먹은그當場에만效果가나타난다던가 對症的에依하야 效가엇다던가하는것이아니라 全身的으로 一個一個의細胞가强化해서 몸을튼튼이하고 病도速히回復케하는까닭입니다

ネオ ネオネオギーㅡ는 胃腸이弱한사람結核性疾患으로 治療가느진사람、精力이減退한사람 其他 血이不足한사람과 病中病後의衰弱等 모든體力이缺乏해서 全身的으로 衰弱하고病도容易히快善치안는분은꼭한번 試驗해주십시요

服用 食後事가急進하게되므로 그中에는過食하게될것을 念慮하는이도잇지마는 그것은弱한胃腸에역지로드리키는것과달라 胃腸그것의 消化力과吸收力을 强하게한結果이故로 食慾이急進함은 當然하며 그때문에害될것는일은조금도업습니다

害가업슬뿐아니라 次第로舌苔가업서지고 口臭가업서지는等의 反應이나타나는것은 漸漸胃腸이튼튼해진證據이며이와가티 食慾이늘고體內에 榮養이充分해지면 當然히體力은 充實하고 피도늘고살도오르게됩니다

購入法에對하야

ネオネオギーㅡ는 約一月分一圓五十錢徳用은三圓과九圓의二種、錠型・粉狀共同價格、全國藥店에서 頒布합니다 直接注文하실때는 藥書로創適元에 申込하되送料不要代金引換으로 嚴重荷造하고急送합니다 但海外는 振替東京五六八一二番에 拂込할것

創適元 東京日本橋堀留町電停際三四 日本微生物研究所 (NN3D1256B)

ネオネオギー 五週年記念 愛用者奉仕

ネオネオギーㅡ사실때마다빠짐업시

抽籤券付 謝恩袋贈呈

奉仕抽籤券內容

一等 高級十六미리映寫機 (필림・映寫幕付) 二六本
二等 二色샤ㅡ푸 펜 실 美麗케ㅡ스入 五七六〇本

締切期日 昭和十三年八月十日限
抽籤期日 昭和十三年八月中
發表方法 同年九月中日刊新聞紙上

左記五種의景品中에 一種이封入되여잇습니다

淋病이면 리베ㅡ루

리베ㅡ루의特徵
一、脂粘膜으로의吸收가速하고服藥한後尿에出하고急速히快感을 ...
一、原因인淋菌을殺滅하고...
一、...

危險한療法은避하라

藥價 二圓五十錢 三圓七十錢 六圓 (送料不要)

부음 세ㅡ치

살균 저절로 ...

明治座 松竹キネマ

5月30日ヨリ6月5日マデ上映時間表

目子 三番		2·09…3·14	6·35…7·40
十の椅子 ニュース	11·00…11·26	3·24…3·50	4·43…8·09
いろは系圖	11·28…12·50	3·53…5·06	8·12…9·34
永遠の感激	12·55…2·06	4·11…6·22	9·37…10·48

元氣よく愛嬌でお客を迎へませう

第一劇場

五月卅六日부터四日間 大公演 每日晝夜二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夜… 特選大驛 瞬間의怪盜

東洋劇場

五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 … 鬼吉喧嘩往來 … ハリウット大通り …

新富座

京城新堂町 (本)五六七七番 歐洲映畫의精華 … スパイ戰線を衝く

俵星玄蕃 風流喧嘩侍

優美館

昨年果樹生産高
苹果 七百二十萬圓 梨 二百五十萬圓
比前年收獲高三割增大

昭和十二年度의 果樹生産高를 調査하면 栽培樹數에잇서 苹果 二百五十四萬二千三百六十八本, 梨百六萬六千九百五十八本, 葡萄 二十四萬一千百九十一本, 桃三十六萬六千八百四十四本, 柿百萬九千七百二十本 그收穫高는 苹果 二千四十一萬七千六百七十二貫, 梨四百七十四萬二千五百八十二貫, 葡萄四十六萬四千二百二十八貫, 桃百三十七萬五千六百七十九貫, 柿四百八十八萬七千百六十七貫 價額에잇서서 苹果七百二十萬七千四百五十三圓, 梨二百四十九萬九千九百七圓, 葡萄三十七萬五千三百九十八圓, 桃五十三萬二千三百三圓, 柿百七十六萬六千五百九圓이다

이를 前年에比하면 栽培樹數에잇서 苹果二十一萬七千八百八本(九分三厘五毛)梨六萬八千三十八本(六分八厘一毛)桃四萬七千八百六十四本(一割五分一毛)의 增加를示하야 葡萄二萬百六十一本(八分三厘六毛) 柿四萬二千五百五十六本(四分四毛)의 減少를示하고 收穫高에잇서 苹果四百六十一萬八千三百八十九貫(一割一厘三毛) 梨百十一萬一千三百八十一貫(三割六厘一毛) 葡萄七萬一千百六十六貫(一割八分一厘二毛)桃二十四萬九千九百八貫(二割二分二厘)의 增加를示하고 柿에잇서三十七萬三百三十九貫(七分四毛)의 減少를示하엿다 價額에잇서서는 苹果八十三萬七千六百五十六圓(一割三分一厘五毛) 梨六十三萬七千九百四十一圓(三割三分五厘四毛)葡萄七萬八千五百十圓(二割九厘一毛) 桃九萬三千七百七十七圓(二割一分三厘八毛)의 增加를示하고 柿에잇서 十二萬九千二百二十四圓(七分三厘一毛)의 減少를示하엿다

少年共同販賣契約은 郡農會長에 一任하기로되어 近近濟州養子會社와契約하기로되엇다

完州振興部落 養鷄配布奬勵

【全北支社發】完州郡農會에서는 助村振興組合을 設立한以後 飼育方法을 指導奬勵하여왓는데現在試驗用으로 三百羽를 기르고잇다 그런데 飼育成績이 良好하므로 內地方面으로 優良種을多數購入하고 管內振興部落에一齊히分配하야 農家副業의하나로써 養鷄를 指導奬勵하기로하고 目下計畫中이라고한다

完州振興部落 養豚副業奬勵

【全北支社發】全北道完州郡農會에서는 農家副業으로써 養豚을 奬勵하고잇는데 任實에서 五頭를 購入하고 管內各振興部落에 分配하고 奬勵指導에 努力하기로하엿다고한다

慶北春蠶 八十萬貫收獲豫想

【慶北支社發】慶北地方 今年度春蠶狀況은 氣候의好調로 말미아마 그成績이 極히 良好하야 大豊作이 豫想되는데 道內總收獲豫想高는 七十九萬八千貫이라는 新記錄으로 各郡別豫想數量은 다음과갓다

大邱 二、一〇〇貫 義城 三八、八〇〇貫 達城 三三、九〇〇貫 盈德 二〇、六〇〇貫 軍威 一五、一〇〇貫 安東 六九、八〇〇貫 靑松 一四、六〇〇貫 淸道 五二、五〇〇貫 英陽 一七、〇〇〇貫 漆谷 一二、六〇〇貫 高靈 七、七〇〇貫 善山 二二、五〇〇貫 迎日 三三、七〇〇 金泉 四三、五〇〇貫 尙州 一六、一〇〇貫 慶州 一〇一、〇〇〇貫 永川 三三、一〇〇貫 聞慶 六三、六〇〇貫 星州 二一、一〇〇貫 慶山 三三、〇〇〇貫 醴泉 六四、〇〇〇 榮州 三七、九〇〇貫 奉化 三六、一〇〇貫 鬱陵島 九、六〇〇貫 計 七九八、八〇〇貫

畜牛增産併行 再共濟도開始
國庫補助十一萬圓이더서 朝鮮農會서積極計畫

朝鮮農會에서는 今年度부터總督府의 畜牛增産에 併行하야國庫補助十一萬圓을 어더 畜牛의再共濟를 開始하기되여 來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京城호텔에서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다음議案을 附議하기로되엿다

一、昭和十二年度畜牛再共濟特別會計의件
一、畜牛再共濟規程의件
一、昭和十三年度收支豫算追加의件
一、評議員選擧의件

水稻更新審查會 六月八月兩回開催
咸南農會에서

【咸南支社發】咸南道農會에서는 水稻種子改良向上의 完璧을期하야 六月上旬 八月上旬의 二回에 亘하야 水稻種子更新審查會를 施行하고서 優良者에게는 賞品을贈呈키로되엿다

金浦春蠶掃立狀況

金浦 金浦郡內에 今年春蠶掃立狀況을보면 郡農會에서 配付한蠶種이 六百九十枚로 昨年에比하야 三十枚가 增加되엇스며 今年은 氣候의關係로 因하야 發育狀況이 優하며 良好하야 아주好成績이 豫想된다

寶城雞卵共販 一個一錢八厘

【寶城】全南寶城에서는 去四月부터 郡內農會에서 雞卵의共同販賣를 開始하엿는데 去五月十五日現在 三百餘貫이나 賣買되엿다한다 그런데 特히注目될것은 雞卵一個에 一錢八厘라하니 京城의 市價와比하면 天壤之判이라할것이다

清州小麥豫想 一萬八千六百餘石

【淸州】淸州郡當局의 調査에依하면 小麥作況은 大麥의凶作에反하야 大體로良好하다는데 그收穫豫想은 一萬八千六百八十九石으로 共同販賣豫想高는 三千六百五十石에 達하리라하며 同

알미늄原鑛의 霞石을發見
軍需工業資源으로重視

戰時體制下알미늄의 軍事的重大性에 더욱重要視되고잇는此際 그原鑛으로 가장經濟的價値를가진 보-키사이트는 南洋其他外國으로부터 輸入되여잇서 戰時體制下에 一大問題로되여잇스므로 朝鮮에서도 全南의明礬石、平南의礬土、頁岩等을 使用하야 알미늄을 精鍊하는方法을 採用하고잇다 어것들은 모두 알미나의含有量廿五乃至卅%바게업서 精鍊電氣料金을 多量으로要함으로 採算이 자못困難하나 明礬石은 副生産物로서 硫酸을採取하야 겨우採算이마저 朝窒、日本電工等에서 精鍊硏究中인데 今回殖産局에서는 알미늄原鑛으로 보-키사이트以上의 最優秀한 純度가높한 霞石이 朝鮮內에 埋藏되여잇는것을 發見하야 알미늄工業에 新生面을 열게되여 一大注目을 끌게되엿다

目下咸鏡北道吉州、江原道襄陽等에 霞石이存在한것이判明되엿는데 또咸南豐山、端川兩郡地方等 北鮮地方에는 相當히此種鑛物이 埋藏된것으로 觀測되여 近近總督府로부터 特殊鑛物探鑛班을 派遣하야 徹底的調査를遂行하게되엿다

이調査의 結果 알미늄原鑛으로 精製까지 一切國內에서行하게되여 重要軍需工業인만치그 成果가 매우期待된다

새로登場한副業 緬羊이란어떤것
⑤ 飼育管理方法如何

緬羊飼育의 特殊作業

緬羊은 다런動物과 달러特殊作業이 必要하다 例하면 羊毛를 剪取하는 剪毛라든지 或은 仔羊이 生産된뒤 十一、二日쯤하야 尻尾를 切斷하는 斷尾라든지 其他剪蹄 藥浴 剪耳 去勢等이다

(가) 剪毛

剪毛는 年一回四月부터 五月사이에 土地狀況에따라 溫暖한地方은 빨리 寒冷한地方은 늦게 行함이조타 剪毛에는剪毛鋏을 使用하는데 小數飼育하는 農家에는 手用剪毛鋏이 便利하며 多數를 飼育할 農家에는 動力剪毛機를 使用함이 適當하다

剪毛를하는데에는 晴明한날을擇하야 緬羊에는 朝食을 廢하고 조금空腹인 程度로하야 羣을 그냥어려나지안는 場所에 板대기 又는 莚을 페이고 行하는것이다 剪毛方法은 經驗이잇는 飼育者 又는 指導에따라 見習함이 조타 初心者는 緬羊의 保定이 잘되지안흠으로 緬羊에 傷하는 苦痛을주어 이때문에 오히려 緬羊이 危險을 하는일이잇슴으로 다리를 묵고서 始作하는것이 安全하다 剪毛方法은 緬羊의左側을 미고 剪毛者는 背方에 位置를잡고 右膝을 股의 댓등어리로부터 肘에 向하야 一直線으로 剪毛하기 始作하야 漸次 下腹을 넘어 左腹에잇는 同樣의線까지 剪毛한後 緬羊의등을 깨는듯이하야 어루지고 羊의 머리를 右膝下에 누여고 左側을 頸部로부터 全體를 조금緬羊과 正面으로 交替를取하야 緬羊의 頸部를 兩膝로 保持하고 背部를剪毛하고 그後右側을 左側同樣으로 頸部로부터 背部에까지剪하거서 全部剪毛를 終了한다 剪毛中頸部의皺와陰囊 乳房等을 傷하기쉬움으로 注意하지안흐면 아니된다 剪毛에 要하는時間은 熟練者는 一頭十五分乃至二十分으로 一日三十頭쯤剪毛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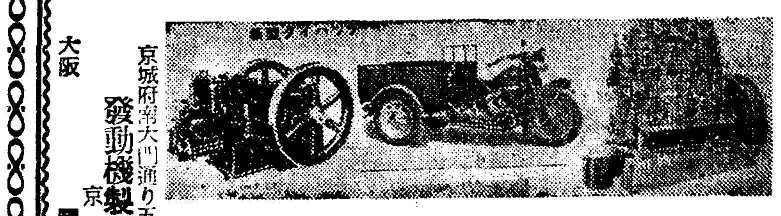
剪取한 羊毛는 一枚의 被毛가된다 이것을 〃프리-스〃라고한다 〃프리-스〃는 剪口를 밧게로하고 兩側으로부터 三折하야 尾部로부터 頸部에 다다(?)그리고 남은 一部를 다시 조와서 羊毛中에 꼬저서둔다 이때肛門、周圍와 尾根、肢下部에잇는 더러운羊毛는 따로집어넘고 조흔部分과 떼여서 賣却함이 有利하다

(나) 斷尾

緬羊은 斷尾치안흐면 尾와臀部가 糞尿에 더러워저 外觀을 損傷하는것이므로 特히 牝羊은 斷尾하여야 交尾의 成績이 良好하게된다고한다 斷尾는生後七日乃至 十五日만에 行하고 去勢한牡羊은 去勢後七日쯤에 行하는것이 適當하다 斷尾方法은 斷尾鋏을쓰는 烙斷法과 刀와 烙鐵을 쓰는 切斷法이잇다

(1) 烙斷法 尖이날는것가튼斷尾器를 뜨겁게하야두고 仔羊을保持하고 (斷尾는 어느方法에 依하더라도 尾根에 皮膚를 잡어 다니는듯하게하고) 尾의 第二關節又는 第三關節로부터 烙斷한다 本法은 同時에止血도되므로 便利한 方法이다 그러나 初心者는 陰囊과 肛門에 火傷을이르키는일이잇스므로 注意할이必要하다

ダイハツ チィーゼルエンジン
ダイハツ號 小型三輪・四輪自動車
內燃料ノ王者 斷然優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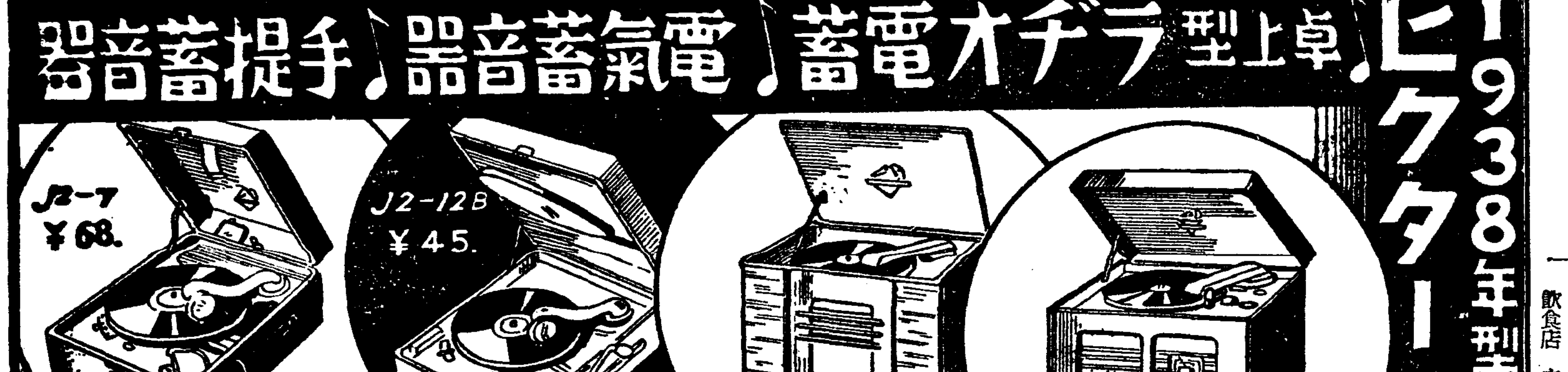
模型 5キロワツト(6.7馬力) 7キロワツト(9.38馬力) 9キロワツト(12馬力) 12キロワツト(16馬力) 大型 670.0.0 750.0.0 750.0.0
竪型 22馬力ヨリ 400馬力マデ 各種
本社 大阪 發動機製造株式會社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り五丁目一九 電話本局三一〇〇七

祝 紙齡六千号 革新五周年

社倉
寧遠郡小白面鯨水里 鯨水鑛山事務所
寧遠郡小白面甘德鑛山 金龍澤
社倉金融組合 職員一同
大興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寧遠郡小白面甘德鑛山 朴晒夏
寧遠鑛山
寧遠郡小白面鯨水里 小林狼林鑛業所
寧遠郡小白面鯨水里 永興商會 主 李德得 金光成
寧遠郡社倉市 王永喜
寧遠郡社倉森林保護區 職員一同
寧遠郡社倉市 飲食店 朱楨乙
平安南道寧遠郡大興面 社倉醫院
寧遠産業組合社倉出張所 職員一同
飲食店 主 李應龍

京城組合銀行
朝鮮銀行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株式會社 第一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安田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三和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株式會社 漢城銀行
株式會社 東一銀行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38年型 ビクター 卓上型 ラヂオ電蓄 電氣蓄音器 手提蓄音器



京城鍾路二丁目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八四

花王シャンプー(샴푸)
花王의品質—
이洗髮料!
머리때가잘빠짐!
날신한머리의感觸!
빗갈이윤택함!
머리를 애중히 하는분은 누구나다
花王샴푸-입니다

日本髮이면一回分
洋髮・少女면二回分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嶺美
平北博川郡嶺美 金泰善 電話七番
京義線嶺美驛前 瑞熏商會支店 崔載堯 (原木製材 セメント ノリスサト 瓦ヤ 石灰 土管 金物)
嶺美融金組合 組合長 金壽長
嶺美金融組合 監事 金健兆
京義線嶺美驛前 三嘉水利組合 職員一同
嶺美驛前 嶺美農業倉庫 職員一同
京義線嶺美驛前 中華料理 飛行堂 電話二五番
京義線嶺美驛前 朝鮮料理 平安館 電話二八番
京義線嶺美驛前 肥料雜貨 木材穀物 中央公司 電話一二番
博川郡南面 面長 韓龍浩
京義線嶺美驛前 株式會社 太宗社 電話五番
京義線嶺美驛前 院長 方承圓 嶺美醫院
京義線嶺美驛前 玄米製造 三成商會 電話七番
京義線嶺美驛前 玄米製造 義信商會
京義線嶺美驛前 李炯立
京義線嶺美驛前 嶺美專賣局販賣所 職員一同
嶺美郵便所 理事 德久寶一
嶺美郵便所 所長 澤崎虎夫
京義線嶺美驛前 李鼎立
朴載植
力丸良平
平壤精米所 主 邊孝達
金昌商店 主 金昌俊
川田源治
尹錫洙
朴致善
金永祚
江原道平昌郡蓬坪面綿溫里 食料商 洪淳元
京義線嶺美驛前 劉基炳
京義線嶺美驛前 金壽益
博川郡嘉山面 面長 安容觀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肥料 太極商會
京義線嶺美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嶺美代行營業所
京義線嶺美驛前 英昌運送店 主 鄭英錫

鏡城
咸北鏡城西門外 尹泳球
鏡城邑內 濟東醫院 裵憲
咸鏡北道鏡城南門外 境城醫院 電話一六番

平壤
平壤商工會議所
平原郡南花面新成里 全仁奎
京義線南安驛前 大同病院 李容謙
平原郡南安面水營里 朴奉恩

順安
平南順安 義明學校
平原郡南花面 面長 吳建和

人夫難對備策으로 火田民積極使役

道內서 一萬六千名을限度로 平南道서各郡에配當

【平南支社發】각공사장 각탄항에 인부가대량적으로 부족한것을 완화하는 한가지 방책으로 산간오해에매이는 화전민을 탄항공사장으로 옮기여다 입부로사용하는 방책을 평안남도에서세우고 실행한것은 이미년전의일이다 당시 도에서는 이방책은 문제의화전민을 정리하는길도되여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명안이라고 하엿섯는데 현실은기대에어그러저 화전민들은 뒤를이여 탄항공사장으로부터 다시산으로도라가는일이만엇다함은 이미봉보에도루보한바이다 그이유로 새일터의노동방식과 생활양식이 파거의자기네것보다 너무나차이가잇서 그러다는 말도잇스나 새일터의 노동조건이 처음그들이예상한것과갓지 못하엿는데 기인한바 만타한다 당국에서는 이방책을 금년도 에는 일층 적극화시켜 도내 화전민 일만 륙천명을 각종일터로 옴기여오려고 각군에 그할당(割當)을 통지하엿다는데 이방책은 방책그자신으로서는 묘한것이나 이에성공하려면 그들이 노동을할 각일터의 각종조건을 유리하게 개선하여 그들을 좀더우대하는 방법바게업스리라고 식자는보고잇다

平北郡守會議 二十八日終了

【新義州】평북도부윤군수(府尹郡守)회의는 회기삼일간으로서 지난이십팔일정오무사히 끄틀내어고 이십구일의 명명식에 참례하얏다가 각각지방으로 도라가기로되엿다

基礎準備도完了 代表者上道陳情

江界中學校設置運動着着進捗

【新義州】수년전부터 숙제로되어나려오던 평북강계중학교(江界中學校)설치문제는 지난번 평북도회석상에서 강계선출 도회의원 강정묵(姜貞默)씨가 오만원 동 김승수(金承洙)씨가 학교설치의"기지"를 제공하겟다고 언명한사실은 당시보도하엿는데 전기양씨의언명에 더한칭 힘을어든 지방 유지들은 그간 강계(江界)를 중심으로하야 후창(厚昌)자성(慈城)위원(渭原)초산(楚山)등지를 망라한 강계중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야 활동중이던바 설치계획이 대체로결정되엿스므로 지난이십구일 기성회대표로써 강게도회의원 강정묵(姜貞默)동 김승수(金承洙)자성도회의원(慈城道議員)이안제(李安濟)강계 유지(有志)김신현(金莘鉉)유상만(劉相萬)강전삼랑(岡傳三郎)등 제씨가 내신 삼십일오전 도청을방문하고 미좌(美座)지사에게 강게중학교설치촉진에대한 진정을하엿는데 강게에 중학교를설치하라는요망은 지리적으로보아 절대로 필요한만큼 이번진정에이서서 설치비문제만원만히 타협되는때에는다년간의 숙망을 해결하게될것이다

委員金莘鉉氏談

강게중학교설치계획에 대한진정위원 김신현(金莘鉉)씨의말을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강게중학교설치문제는 지난번 도회서도 설치안이채택되엿스므로 이번기회에는 꼭실현시키려고 강게를 중심으로한설치기성회를 조직하야 활동을 한결과 설치비로 이십만원내지 삼십만원까지라도 기부금에 의하야 염출하도록 대체계획이서잇습니다운운

期成會正式發會 運動方針等決定

【江界】지난삼월 평북도회의당시 강계군선출의원들은 강계공립중학교(江界公立中學校)설치에관한 건의안(建議案)을 제출하야 본안의 채택을엇는동시에 강정묵(姜貞默)의원으로부터 엄시비로 오만원, 김승수(金承洙)의원으로부터 기지(基地)오천평을제공할것을 언명하여 어로써 동교설치운동은 드디여 본격화하게되엿다 기보한바와가티 지난이십일 동교설치기성회발기회를 열엇고 동이십일오후다섯시부터 강계읍회의실에서 강계공립중학교설치기성회의 정식발회를 보게되엿다 동석에는 각게중요인물오십여명참석하에 발기인대표로부터 취지설명과 경과보고를하고 추진운동에 매진할것을 굿게약속한다음 회즉제정과 임원선정이잇섯다 그조직내용에잇서서는 강게 후창 자성 위원 초산 희천(江界 厚昌 慈城 渭原 楚山 熙川)육개군을 기초로 삼아 강계군에 본부(本部)를두고 그외 각군읍 필요한 개소에 지부(支部)를 두어 운동에 당하도록 하고 임원선정내용에 잇서서는 강계군수 정자현(鄭子鉉)씨를 회장으로 김승수(金承洙)강정묵(姜貞默)량씨를 부회장으로 그리고임원은 회장부회장에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엿다 회결성에관한순서가 끗난다음 운동에 관한구체안을 세웟는데 위선진정위원을 도에 파견하야 설치운동에대한 도당국의 허가를맛기로하고 즉석에서 동위원을 선정하엿는데 김승수 강정묵 유상우(劉相禹)김신현(金莘鉉)강전삼랑(岡傳三郞)외 자성군선출도회의원 이안제(李安濟) [illegible] 도회의원이원 [illegible] 파견케하야동이십칠일 [illegible] 되엿는데 [illegible] 상경중에잇는 정자현씨와 [illegible] 씨등하여금이에 가담케하엿다한다

이바들가러서

초하의 시원한바람이 포플라닙을 스치나 농부의논에는 땀방울이 굴고잇다。그러나 누구가 탓하랴? 오직 바라노니 날세만잘하소서、그리면 따스한훈축에 안기여 싹이트고 닙이자라고 꼬치피엿다 정말 구슬보다더귀한 곡식의열매가 쏘다지리니 그리하여 농부의집안에는 새로운행복이 새로 차즐것이다。―二十九日 平壤府外에서―

光州에小火

【全南支社發】이십칠일오후 구시반경에 광주부수기옥정(光州府須奇屋町)조선농수회사(사원)강중현(姜中鉉)의집에서 발화하엿는데 때마침 폭풍우가맹렬하야 얻지는위험상태에 잇섯는데 소방대총동원으로 일농사간가옥만을 전소하고 동열시오십분경에 겨우진화하엿는바 피해는 약오백여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실화라한다

駐支大使館員福田氏 清津의實情踏査

日本海湖水化에拍車

【淸津】일본해호수화(日本海湖水化)라는말은 어느동안에 시대의 유행어로 화하야잇고 그실현이 또한 목전에 갈려잇는느낌을 갓게하는요사이 또한가지 주목을 끌만한일이잇다

지난이십칠일 외무성(外務省)소속북경주지대사관원(駐支大使館員) 복전서기관(福田書記官)은 사가를어더귀국하는동안일부러 신경(新京)도문(圖們)을경유하야 청진항에나타나 다시돈하(敦賀)로 향하야 귀국하얏는데 복전씨가 이처럼 우회한내용을드르면 씨는 외무성당국의 명령에의하야 일만직통경(日滿直通徑)인 이「코-스」에대한경제(經濟)와 항만(港灣)관게의실정조사를 위한것이라한다

이간단한 복전씨의 통과에대한소식은 그대로 그무엇인가를 포함한 행위인것가티 외무당국이 구체적으로 북조선경유의일만「코-스」에 편신을갓고 일본해호수화정책에 박자를 가하는것이라하야 주목을끌고잇다

農村勞動者도不足 移秧도失期念慮

咸南各地에서爭奪戰

【咸南支社發】공사장로동자의부족으로 곤두통가운데에잇는 함남도에서는 공사장뿐만아니라일반농업로동자(農勞)들도 대부족되야 어양기를압두고 농촌에서 크게 우려하는가운데에잇다

지난번 각공사장과 일반농촌을 시찰하고 돌아온죽구(竹久)도사회주사의 말을드르면 허천강수전공사(虛川江水電工事)등이상공사장의 로동자는 문자그대로 크게부족되고잇는데 제일공사가 왕성할때의 대책을크게우려하고 잇다

그리고주목되는것은 공사장의 로동자부족만이아니라 일반농촌에서도 일시에 다량으로쓰는농업로동자를 도저히 구할수업서 이앙기가 박두하고잇는 이때에 그들 로동자들을 구하기에서로 경쟁을하고잇스며 때가잇는 이앙이실기(失期)나 되지안을가하야 매우근심중에잇다고한다

青陽에「지프스」

【大田】충청남도청양읍(忠南道靑陽邑)에는『지후스』환자가 사명이나 발생하엿스므로 도위생과에서는 청양서에 예방주사실시를 철저히하고 지급실시하라고 통첩을 발하엿다

合德에電燈架設

【合德】충남당진군합덕시『忠南唐津郡合德市』는 년수십만석을 산출하는조선(朝鮮)재래유명한소평(牛坪)강문리(江門里) 평야의 중심소비시장으로 년수백만의매매가 잇서양곡(?)의시장으로 인구와호수가 날마다 증가되야 [illegible] 이되나 문화적시설(文化的施設)이 불비함으로 [illegible] (合德電燈會社)에서는 표로 [illegible] 기회사 [illegible] 에서는 하개월전부터 전기가설공사를 하여오든중 준공되엿음으로 지난이십오일밤부터 비로소점화(點火)하게되야 합덕시가는 완연한불야성(不夜城)을이루웟다한다

爆破作業中 通行을禁止

鴨綠江第二鐵橋

【新義州】목하공사중인 압록강제이철교(第二鐵橋)공사는 착착진보를 보이고잇는데 신의주측으로부터사백십심"미돌"의 강중에잇는 제구호 교각(橋脚)에 구렬(龜裂)을 이르켜 안동측에 약"이십센치"가량이 침하엿스므로 이를고치기위하야 이십팔일부터 매일오전열시부터 오후한시까지사이에 약십팔의"남포"를 사용하기로되어 당분간시간중에는 철교의통행을 금지하고 선박도 약십삼백"미돌"의거리안에는 항행을금지(禁止)하기로되엿다

自動車事故一日兩件 老婆와少女轢死

金海、昌原兩郡下에서

【慶南支社發】지난이십칠일오후 육시삼십분 경남김해읍 마마리(金海邑馬厩里)압도로에서 경남자동차회사(慶南自動車會社)소유 경남제일구배경성가통을 운전수최재수(崔在洙)(三)이가 김해읍에서 손님네명을 태우고 부산으로향하야 운전하야가는 도중 그부근에 사는 지순이(池順伊)(七)라는 로파와 충돌되여 늑사케하얏다고한다 그리고 동일오후 칠시경에 경남창원군내서면 호계리(昌原郡內西面虎溪里)도로에서 창원군남지산업조합(南旨産業組合)소속자동차 경남제이백사십팔호를 운전수 안영종(安永宗)(二五)이가 전기내서면 중리(中里)에서 비료(肥料)를만재하고 남지산업조합으로 향하야도라오다가 그부근에사는 김모(金某)의삼녀김분이(金粉伊)(十)를바다즉사케하얏다고한다 그래서각관계 경찰서에서는 관계자들을 호출하야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府區域擴張에따라 激化될初等校入學難

編入地區學齡兒童만八千名 大邱府에서對策講究

【慶北支社發】대구부세구역확장에따라 인근군부의 부편입으로 원간 실시될것인바 이편입으로 말미아마 얼어날문제는 한두문제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입학난은 근래에다소완화되엿다할지라도 금년도실적을 보면 대구부내초등학교지원자총수는 삼천이백삼십칠명중 공사립팔개소학교에 수용된수는 이천백륙십여명으로 남어지천여명어 취학되지못한 현상인바 이아동의 수용에는 아직 십오학급의 증설이 필요한대 금번부로편입될 성북(城北)달성(達城) 수성(壽城)의 삼개면에서 학령에달한 아동은 아래와 가티 실노 팔천백여명에 달하나 부편입될학교는 불과 달성소교(達城小校)(收容能力二學級二百十名)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부속소학교(收容能力現百十名)바게 업는터로 편입되는 인구의 격증에반하여 편입되는 학교수는 극소하여 대구부내의 초등학교 입학난은 금후 일층격화하리라고하야 부학무게에서는 벌써부터 그대책을 강구하는중이다 이난문제를 어느정도까지 해결하여 부내초등학교의 입학난을 완화할것인가 일반은 부의 처치를 기대하는중이라고한다

大邱府編入地域學齡兒童數

城北面 一、〇一五人 達城面 三、八六六人 壽城 三、二三〇人 計八、一一一人

產業開發의中樞 邱南、浦木兩線을促進

大邱에서代表四名이出席

【慶北支社發】대구 상공회의소(大邱商工會議所)에서는 거번에 소선상의(商議)정기총회에 제의안을 결정하엿던바와가티 남조선지방의 횡단선(橫斷線)부설은 긴급한문제라는것을 역설하엿던바 오는 유월구일 목포(木浦)에서 열일 구남선(邱南線)―(大邱―南原)―의 연장인 포목선(浦項―木浦)촉진기성회에 대구로부터 고시(古市)부윤 이등(伊藤)상공회의소 부회두 길전(吉田)동이사 삼원(杉原)도회의원등이 출석하기로 되엿는데일마전에는 목포의부윤과 상공회의소 회두일행이 대구、포항등지를 방문하고 이운동의후원을 청한바도 잇섯던터로 그대회는 대구(大邱)포항(浦項)남원(南原)목포(木浦)사개도시관민이 협력하야 맹활동을 할것으로 동선이 개통되는때 에는 산업개발상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주목된다고한다

基督教聯合機關

六月五日發會式擧行

【全北支社發】전주기독교계(全州基督敎界)에서는 조선기독교경성연합회에서 보내온「본연합회는 기독교인의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상호협력하야 기독교전도의실적을 현양하는동시에 황국신민으로써의 보국의 충성을 기하기로한다」는 취지에 찬동하고 부내조선인교회오개소 일본기독교회 일개소 합육개교회대표 십이인이 오월이십팔일밤 남문예배당(南門禮拜堂)에 회집하야 이상육개소교회를 결속하야 전주부 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는동시에 전차 도내 각지 기독교도를 총결속할것을 협의결정한다음 오는유월오일오후삼시삼십분 전주서문예배당(西門禮拜堂)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기로하고 당국과가티 외원경성연합회 참가총대를 선출하야만반준비를 다하고잇다고한다

▲委員長 高得恂 副委員長 唐牛 庶務委員 金允植 野口東一 財務委員 張仁福 丸岡仲介 委員 全州牧師長老二阿 ▲京城聯合會參加總代、委員長 高得恂 副委員長 唐牛 ▲事務所 全州高砂町 日本基督敎會內

天安邑戶別稅查定

【天安】충남천안읍(天安邑)의호별세등급사정은 지난이십오일오전구시부터읍회의실에서 각의원열석하에 착수하엿는바 원안에 다소수정을한후 동일오후육시에무사히종료하엿다한다

警民一致座談會

【海州】황해도경찰부에서는 비상시국하에잇서 충후치안의완벽을꾀하기위하여는 일반민중의경찰에대한 이해를긴게하야 경민일치(警民一致)협력의실적을 올리는것이 당면의과제라하야 우선제일착으로 관내각경찰서에 그관내좌담회(座談會)를 열기로되여 지난이십팔일각서에그통첩을 발하엿다

이좌담회는 온갓방면으로부터 경찰에대한 희망 혹은 의견을드러 자기비판의참고재료를삼으며 또한경찰사무및 그시설사항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야 민중의이해와협력을어더 경민일치의성과를 어드려는것이로 각방면의기대를 끌고잇다

釜山

第三回 全朝鮮蹴球戰

▲時日 六月十八十九兩日

▲場所 釜山公設運動場

◇主催 釜山體育會

◇後援 東亞日報釜山支局 朝鮮日報慶南支社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分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扶餘支局 位置 忠南扶餘郡邑內 變更 昭和十三年五月十二日 支局長 文章燮 右新任 支局長 姜○柬 右依願解任

堤川支局 位置 忠北堤川邑內 變更 昭和十三年五月十日 支局長 姜海喆 右新任 支局長 [illegible] 右依願解任

黑橋支局 位置 黃州郡黑橋驛前 變更 昭和十三年五月二十三日 支局長 丁京鎬 右新任 支局長 丁炳○ 右依願解任

清道支局 顧問 崔在鎬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淳昌支局 記者 林允祚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揷橋支局 記者 成夏慶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法聖浦支局 記者 安聖柏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奉化支局 總務兼記者 權寧範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黃州支局 記者 金一長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長淵支局 總務 金承河 記者 吳錫泳 同 韓順永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忠州支局 記者 梁錫玉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興上支局 總務 韓斗輔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社倉支局 顧問 許守一 總務兼記者 [illegible]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六日附

江東支局 記者 金敏煥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九日附

裡里支局 記者 朴長燁 右新任 總務兼記者 金洪培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二十九日附

謹告

今般本支局管轄仁州分局을左記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仁州分局 位置 忠南牙山郡仁州面 [illegible] 變更 昭和十三年五月二十五日 分局長 車○○ 右新任 分局長 金東漢 右解任

朝鮮日報社 牙山支局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夢金浦分局 位置 長淵郡海安面夢金浦邑 變更 昭和十三年五月二十四日 分局長 姜○○

朝鮮日報社 長淵支局 白

三稜分局 位置 咸南北靑郡三稜面 變更 昭和十三年五月二十三日 分局長 金秀悅 右新任 分局長 金明○ 右依願解任

經濟解說

國産팔프市價
—人絹糸布輸出에影響—
物價高와그對策 ④

綿業 羊毛工業이 未曾有의 苦難에 直面헤 잇슴에 對하야 人造纖維工業의 躍進은 顯著하다。가튼 人造纖維라 할지라도 人絹은 『스테이풀·파이버』에 壓倒되고 人絹大臣이라 하던 小川商相當時의 빗난 國策的聲明에 若干遜色이 잇기는 하나 『스테이풀·파이버』가 國內向纖維製品 毛織製品에의 混用에 依하야 今日의 國際貸借改善에의 間接的奉仕를 行하고잇슴에 對하야 人絹은 依然輸出産業의 第一線에 活躍하고 國際收支上에 貢獻하는 바이며 逐年重要性을 增加하는 中이다。

昭和十二年中의 『팔푸』生産輸入高와 그것을 原料로한製品의生産 輸出高를보면 右理由가 明白히 될것이다。即

人纖用 『팔푸』는 輸入에 依한것 約八千萬圓餘 國內生産에依한것 約七、八千萬圓으로 合一億五、六千萬圓에 達하는데 이에對하야 人絹織物(交織物包含)의 生産은 三億八千二百萬圓 人絹의生産은八千萬圓으로 右人絹織物中 一億五千四百萬圓이 輸出되고其他人絹絲가 四千四百萬圓 人絹及人絹絲 千五百萬圓輸出되엿다。

人絹及人纖의生産額의 輸生産額에 對한比率을보면 兩者는大略 恰似하다고 생각하야도大差가업스므로 輸出로서는 如左한數字를 볼수잇다。(百分比)

木材『팔푸』用	二五─三五
藥品代	二五─三〇
燃料動力	一〇─一五
工賃	一〇─一五
營業管理費	一〇─一五

最近『팔푸』及藥品의値上이激甚하므로 兩者가占한 比率은 增大될지모르나 藥品인 苛性曹達、硫酸、二硫化炭素、鹽酸等은 原料인

工業鹽 을 三千萬圓 輸入하고 그남어지는 大體 我國에서 生産하고잇스므로 人絹、人纖工業에잇서서 海外로支拂하는 金額은『팔푸』代及工業鹽代의一部合計一億圓餘를支拂함에 不過하고 이에依하야製品의輸出은 二億數千萬圓으로我國의 纖維工業中 生絲及綿織物이國內에서 生産되고 海外에팔리어 四億八千萬圓의 受取勘定이됨에對하야 今日의 時局이 要求하는 意味에서는 國際貸借上、生絲에이어서 重要한地位를 占하얏다고할것이다。

最近三年間의 『팔푸』輸入高를 보면 (單位百萬圓)

	昭和十年	十一年	十二年
製紙用	二一	二三	三六
人纖用	三四	四四	八〇
合計	五五	六七	一一七

以上과가티 主로 人纖用의『팔푸』輸入增加가 顯著하다。政府는 이增加傾向에잇는 輸入『팔푸』를 漸次 排除하고

五年後 에는『팔푸』를全部 自給하고 羊毛、棉花에의 混用率을 一層引上하야 國際貸借上 三、四億圓의 支拂勘定을 節減하자는 遠大한 計畫을 樹立하고 이미 그一部의 實行을 開始하얏다。

即 五個年案에 依한『팔푸』增産計畫은 現在의 年産九十萬噸으로부터 四十餘萬噸의增産을 目標로하는것으로 그年次增産額은 如左하다

十三年 九四一千噸 十四年一、〇一一千噸 十五年一、一九九千噸 十六年一、二七六千噸 十七年一、三五一千噸

이外에 滿洲에서 三十萬噸의 生産計畫이 五年後에는完成케되엇다。現在 滿洲의 木材『팔푸』三十萬噸案에는 多少疑問이 잇스나 政府가 豫想하든 以外에 새로운『팔푸』生産計畫이 나타낫스므로 人絹、人纖工業의 原料自給問題는 이로써 解決되엇다고 보아도 조흘것이다 今後의 問題로서는 먼저 國産『팔푸』가 果然輸入『팔푸』에代하야 從來와 遜色업는 製品을生産하고輸出할수잇슬가함에잇다。

今日까지는 國産『팔푸』가 輸入『팔푸』에 比較하야 昭和十二年中의『팔푸』市場에서 全世界의『팔푸』業者가 다만 原料『팔푸』의大部分을 輸入하고잇는 我國의人絹輸出이 世界人絹의 이러나지못하게되면 海外市場의 勢에서自給되어 國産『팔푸』의 市場은 國産『팔푸』보다 노흔데에 安心하야 國産『팔푸』의 需要는 反對로 業者들의 消費가 增加할것이지만 品質이 優良하다면 我人絹絲布의 輸出은 一層進展할것이나 品質이 그만치 向上되지못하면 打擊을맛게될것이다 最近 商工省 이王子製紙에 對하야 販賣價格의 引下를 要求하고잇는데 王子製紙의 態度가 注目된다 當局은 人絹生産의 主要原料인 『팔푸』의 將來 輸出市場의 供給에 對하야 王子製紙의 業者는 最近의 新設計畫과 ... 市場에 三割을 占하는 ... [illegible]

競爭力 輸出上重要한 要素는 原料의 價格이다。最近그原料의工業國으로서는 國産『팔푸』의 價格으로 日本에잇서서 輸出人絹의 競爭力을 가지게되는것으로 이 對策으로 은我輸出人絹의 增加를 期待할수잇는 ... 分이되어現在의市場價格에 다시 依하야 은低下할수업는 ... [illegible]

三A四百圓突破
天井不知狂騰인純綿布
比前年十一割八分高

純綿布의 都賣期限이 今月末으로부터 終了될을따어市中의『오모와구』가最高調에達하야 天井不知의 勢로暴騰을 거듭하던京城綿絲市勢는 許可期限을 하로남긴三十日에는 드되어三A四百圓을 突破하야 四百二圓의高價를 보이엇스며 京紡製品인 太極星은 仲値發表를 中止하얏다 이제京城綿絲布의 今月三十日市勢와 昨年五月二十九日市勢를比較하야보면如左하다

	今年(今日)	昨年(前日)	比較
三A	四〇二、〇〇	一八四、〇〇	二一八、〇〇高
九龍	三八二、〇〇	一八四、〇〇	一九八、〇〇高
鶴龍	三七七、〇〇	一八四、〇〇	一九三、〇〇高
金剛山	三八二、〇〇	一六四、〇〇	二一八、〇〇高
長壽	三六八、〇〇	一六四、〇〇	二〇四、〇〇高

即三A는 倍額以上인 十一割八分의 暴騰이엇다

大衆假需要滿腹
今後消化가問題
國策인混紡의使用을乘機한
不純한買思惑非難

累報와가티 純綿布의 都賣許容期限은 八月末日까지이오 小賣期間은 八月末日까지이므로이달안에 될수잇는데로 만히사두엇다가 六、七、八三個月동안에 小賣하야 巨利를圖하자는것이今番京城의純綿布暴騰의 原因이다 이리하야 畢竟에 三A는四百圓소리가나고만터인데 이에問題가 되는것은 今後三個月동안에 이러한幾何級數의高價를 演出하고買占한것이 果然一般小賣로 잘 消化될가가 關心되는바이다 四月一日 混紡實施소리가나자여미 一般家庭은 당장不必要한것이지만 다시살수업다생각하야假需要가 猛烈하야 市中布木店은 門前成市의活況이엇스니 大衆의 純綿布買는 一巡되엇다고도볼수잇는일로써 昨今布木店의 取引狀況을보면 너무갑시 올라서사러갓든 손님들이 사지를안코그만두며 또布木店들은 先高를豫想코 裏面으로는 賣惜하고잇는모양가튼데 萬若都賣商側의思惑대로 一般의需要가 高價에 喚起되지안는다면 팔리지안는 高價品을 잔뜩 짊어지게 될것이 아닌가 念慮가不無하다

또이번의 天井不知의 暴騰은 都賣商間의思惑에 因한것이니까 別로큰 問題가 되지안는다하나 國策으로써 混紡使用을獎勵하는 이때이라 商人의不純한投機는批難이잇슬뿐아니라 當局도 小賣價를今後暴騰시키는데는 監視치안흘수업는만큼 今後趨移가 注目되는터이다

戰時下朝鮮商議總會議案

朝鮮商議第七回定期總會는 來六月二十一日頃開催될터로 同總會에 提出할 議案도거지반 提出되어 着着準備를 進行中인데 今日까지 提出된 議案은 總數十三으로 如左한것이라고한다

第一號議案
中小商工業資金融通損失補償制度를速히實施하기를要望할(群山)

第二號議案
日本海航路擴充과 日本海經濟問題에 關해서는 朝鮮側에서 積極的으로 發議及이指導에當하거를 要望할(淸津)

第三號議案
對支貿易의 振興을 圖하기爲하야 對支輸出品에對하야 船車運賃의 特別割引運賃制度를 實施하기를 要望할(仁川)

第四號議案
都市金融組合貸付限度增額과一般金融業者의 金利引下를 要望할(全州)

第五號議案
地下資源의 積極的開發을 圖하야 이에 必要한 資材를 全面的으로 擴充補給하야써 時局의要求에 對處하기를要望할(平壤)

第六號議案
大工業港을 造成하야 對支貿易工業의 振興發達을 積極的으로促進키를要望할(鎭南浦)

第七號議案
對支貿易擴展策으로 朝鮮西南部主要港灣을 據點으로하야 天津、靑島、上海等에의 航路의充實과 이들과朝鮮內各鐵道와의 連絡을 强化하야 急速完成을 企劃하기를要望할(大邱)

第八號議案
事變下의 中小商工業者의 實情에 鑑하야 이指導助成을 一層積極的이되게하기爲하야 商工會議所에서 그施設을擴充하려는 境遇에는 當該會議所의 經費狀態를斟酌하야 特히 總督府로부터 補助金을 交付하도록하거를 建議할(新義州)

第九號議案
輸出品의 加工原料에 對한輸入制限의 緩和를 當局에 要望할(釜山)

第十號議案
時局의 重大性에 鑑하야 總督府는 速히 國防上、産業上、交通上 重要한使命을가진 道路의改良普及에 努力하기를 建議할(京城)

第十一號議案
滿洲國의 稅關手續의 簡易化로 左記事項實現에關하야 折衝해주기를 要望할
朝鮮內輸出地에서 滿洲國輸入免狀을 發行할수잇는 方途를 講究할것(木浦)

第十二號議案
鮮滿一如의國策上 咸中線道를 急速히 敷設하기를要望할(咸興)

第十三號議案
現下의 重大時局에 鑑하야 朝鮮內의 軍作業廳의 擴充을 要望할(大田)

朝鮮小運送統制
實現機運促進
工藤鐵道局長
積極實行方針

內地의陸上小運送은 日本通運會社의設立에依하야 完全히統制되고 이에關聯하야 朝鮮의小運送統制强化가 一兩年來의懸案이 되어잇는데 廿八日 入京한 村上朝鮮運送社長은 이에 對하야 積極的意向을 表明하고 問題는 促進될것이라는 空氣가 濃化하얏다 即同問題에對하야서는 總督府와鐵道局에서도 이미 그制度形態에對하야 調査硏究에 着手하고잇고 村上氏도 鐵道局側에 이點에關하야 陳情도잇는 點을 하게되엇스므로 來年度豫算에 그所要經費가 計上되리라고도 觀測된다한다

朝鮮의小運送統制에 關하야서는 內地의實績에鑑하야 自明論이 잇섯스나 工藤新鐵道局長의就任에依하야 同問題에對한 鐵道局의見解도 積極化하고 今回의村上朝運社長이 入京하야 總督府와懇談한結果 局面이一新되어意外로 急速히具體化될것을 豫想코잇다

一、朝鮮의 現在小運送業은統制되어 朝運은 進步的이나마制度의 非合同運送業者이緊急히 要求되는것
一、工藤新局長은 內地小運送統制의立案者로서 斯業刷新에對한造詣가깁고 村上朝運社長도 또統制의要을 指摘코잇는것

의二點으로 急轉直下的으로 進展되리라고보이는데 工藤局長과 村上氏의 會談은 極히注目된다 그러나 그統制의 具體的方法에 就하야서는 內地延長의 單一國策會社를 特殊會社라는 形式그대로를 踏襲할지 或은 朝鮮의事情을加味할지 相當히 問題이오 今後더욱 硏究하리라한다

村上朝運社長 談

朝鮮의小運送의現狀은 宇拔實施를機會로 非合同業者와의 協調機運이 顯著히醞醸되고잇는데 小運送의根本的統制가
一、小運送業의 國民的使命達成
二、業界의永久的安定
을目標로하고 資力、信用、設備의三點의完全어 그具體的方法으로서 絶對로必要하다는點으로 생각하야 朝鮮小運送의實情은 아직 前途遼遠의觀이잇고 制度의根本的改正과 機構의經濟的統制는또 半島産業의發達에 併行하기爲하야서도 必要하다 總督府도 現在 檢討中임으로 不遠間有效適切한 方針이 明示케되리라고 생각되며 朝運으로서는 勿論여에順應하야 協力할생각이다

土地改良協會創立

朝鮮의 土地改良事業의 發達을圖하고 會員相互의 共同利益의增進을 目的으로써생긴 朝鮮土地改良協會創立總會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엿는데 全朝鮮各地의水利組合代表四十餘名이 出席하얏다 議事에入하야 會長에湯村農林局長、副會長에 橋本土地改良課長、其他理事十名을 選任하고 評議員會와 理事會의組織 今年度豫算事業計劃等을 附議決定하얏는데同協會事業內容은如左

一、灌漑、排水及防水의 施設運營에 關한助成
一、農事改良의 獎勵에關한助成
一、水利組合事務改善에關한助成
一、耕地整理事務及圖面作成受託
一、水利組合職員의 養成敎養及斡旋과福祉增進에 關한施設
一、肥料、農具、種苗等農耕上必要한 物品及重油其他水利組合需用品의 共同購入斡旋
一、農具、機械及工事材料等의貸付와 借入、購入斡旋
一、工事請負人의斡旋
一、其他土地改良에關한硏究調査紹介宣傳事項

會社總會一束

朝鮮窒素 朝鮮窒素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興南本社에서第二十二期定時總會를 開催하고左의 利益金處分을 附議可決 監査役森矗昶、金田榮太郞兩氏任期滿了改選件은 兩氏重任決定인바利益金處分案은如左(單位千圓)
總收入 四〇、一九六 總支出 三〇、七七四 差引 九、四二一 前期繰越六一〇 合計一〇、〇三一 財産消却 四、五〇〇 法定積立金三〇〇 別途積立金 四、三〇〇 退職慰勞基金二〇〇 役員賞與金五〇 後期繰越金六八一

朝鮮石油 朝鮮石油에서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朝鮮빌딩五階會議室에서 第六回 定時總會를開催、木村專務議長下의
一、昭和十三年上期諸決算案과利益金處分案議決件
二、取締役任期滿了選擧件을 附議하야第一號는 原案대로可決 第二號는 橋本、木村、關水、野口、小倉、杉野、福島、金季洙、朴興植、佐方、大塚、大坪諸氏重任決定인바 利益金處分案은如左(單位圓)
當期純益金 六一六、二二八 前期繰越金 一〇一、三三三 合計 七一七、五六一 法定積立金 三三、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五〇、〇〇〇 株主配當金(年八分) 三五〇、〇〇〇 役員賞與金 五〇、〇〇〇 退職手當積立金 二五、〇〇〇 後期繰越金 一一〇、五六一

南鮮合電 南鮮合同電氣에서는 三十日 午後一時부터 遞信事業會館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故副社長上林亥八氏에게 弔慰金贈呈件 二、取締役一名選任件을 附議하야 一號案은 重役會一任、取締役에 飯倉文甫氏(元遞信局工務課長)를 選任하얏고 重役會에서 飯倉氏를 常務取締役으로 互選

朝鮮運送 朝鮮運送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本社에서第十四回定時總會를 開催 村上社長議長下에
一、昭和十二年度下期諸決算案及利益金處分案에 關한件을 異議업시承認
二、取締役增田平八、高瀨陸朗任期滿了에對하야選擧件은兩氏重任決定
三、前取締役中野金次郞氏同姜昌熙氏前監査役豊任輝日出氏에게 慰勞金贈呈件은取締役會一任
決定인바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利益金四八五、六二六 前期繰越金 四五、三四二 合計 五三〇、九六九 營業權償却一九九、四七一 所有物減價銷却 ... 差引 二四二、... 法定積立金 一〇、〇〇〇 從業員退職基金 四〇、〇〇〇 役員賞與金 一八、〇〇〇 株主配當(年六分) 一二七、五〇〇 後期繰越金 四五、八三六

都市經營 朝鮮都市經營에서는 三十日午後二時부터 十三期定時總會를開催 左記利益金處分案을 附議可決하얏다(單位圓)
當期純益金 一〇、七〇六 前期繰越金 五一、九四一 當期利益金 七一、六四八 法定積立金 一二、〇〇〇 株主配當(年一割) 二二、五〇〇 後期繰越金 五八、一四八

弘中商工 弘中商工株式會社에서는 三十日午後二時부터 府民館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一、第二弘中商工을合倂하야第二弘中을解散
一、定款改正의件 資本金株數變更의件
을附議可決하고弘中商工會社는 資本金二百萬圓이되엇다고

經濟界消息

○『米界指針』創刊=仁川市場出入記者中丹野市三郞、鄭秀日氏等이 同人이되어 週刊으로『月四回』『米界指針』이라는 米界情報를 發刊하기로되엿는데事務所는仁川府龍岡町二〇番地에 置하고 來月五日頃創刊號를發行하리라고

○安川東拓總裁 三十日入京=安川東拓總裁는 廿九日滿洲로부터木浦에上陸하야 光州、松汀里를經由하야 三十日午後十時三十五分着入京

株式 低寄後反高
今日의市勢(卅日)

前場低保 再昨前場底堅大引後 休日中의 外電은 米棉은 依然落調이나 株式은 底强이오 米國의 不戰條約聲明等으로 嫌氣도잇섯스나 新藏相에對한 期待等과함께低價에買物이 潛在하엿다고보여 氣配少堅을 傳하엿는데 今朝에는 意外로下寄로東新一圓三低 鐘紡七低의 無勢가 되엿고 그後押目買物로 少返되엇스나 伸力도 鈍하야揉合裡에 保勢이다가 結局東新四十八圓丁鐘紡二百四十六圓八에止하엿다

後場堅調 後場은 東新七高 鐘紡三高로 少堅寄付後 東新은 百四十九圓臺로 上進하고 따라 諸株堅調이엇다

形勢觀望態度

內閣改造를 前後하야 一場波瀾을 그리든市勢는 大勢에對한氣迷와함께 强弱觀이 區區하야 一高一低로 高下狀을보이드니 今朝에는 다시 下寄로 無勢가되고 그後少反撥의 揉合이엇든데 어쨋든 要컨대 戰局의進捗에는 勿論相當한 期待를두어도 相關이 업스나 어느期間에依한 戰局의 進展이라하지온 거의度外視해도 係엄을것이오 그보다는 北中支經濟開發等을中心한 對支策의 具體化와 對支國策에對한外交問題가 强한重大하다 當分이업고 또하나는 新藏相의政策과 財政經濟關係의 一元化와 輸入統制等에 依한事變後의 新體制에다서 期待를 가지게되므로 이모든것이 將來의强材의要素를 內包한것임에는 틀림업스나 그具體化를보기까지는 强氣를不許하는狀態에 여기저기市勢는 다시踏步를 할수밧게업시되엇다

伸力培養時期

內閣改造後의 革新政策 遂行을 보고저하는 愼重한 態度와 反買人氣로 市勢는 反發保勢를 되엇고 이 場面은 月末警戒와 明日에 配當落을 앞문것등으로 해서 一層 賣買薄의 閑散狀이 되엇는데 市勢의 步調는 今朝의 上放에 當然紀到된것이 反해 下放이되엇스니 여저기 여대로 上進하기는 困難하므로 수업서 머칠동안은 下値鍊磨을 거듭할수밧게 업슬것이어서 따라서 越月後의 新甫를 期待할順序가되엇다 勿論財界의 實情으로보면 原料入手難으로 諸事業會社의 苦惱은 甚하고 一方으로는 物價抑制에 對한 政府의決意는 强硬한것等으로해서 物資需給關係에對한 新藏相의 政策具體化를 보기까지는 盲目的으로 買進하기는 困難한터로 暫時는 亦是觀望의無爲나 環境情勢나實人氣의 極致가된 場面이나 金融情勢等여러가지 諸點으로보아서 下値는 決코 깁지안흘터라 說이 多하야 堅調으로示하는低價는 買狙해보는것이 어떨가하는 强氣的見解도잇든바아니다

朝鮮石油增資方針
木村專務意向表明

朝鮮石油의增資는 結局時期問題이엇는데 三十日定時總會後의 懇談會에서 木村專務가 增資의 意向이잇는것을 當明하얏다 即同社의 借入金은 八百七十萬圓에 達하고 그償還과 積立準備中의北支石油會社에의 投資運轉資金等의關係로 增資는不可避이오 重役會에 諮한後 適當한 가까운將來에增資할方針인바 增資額은大體倍額增資일듯하다한다

國債不動 【東京電話】

(同盟) 國債는 依然 刺戟材料가 고롭만한것이 업고 小口의 賣買가 잇슬뿐이어서 活氣업은 立會狀을 示하고잇서서 自然 市勢도 何等의 變動이 업다

南鄕小感

㊑……步調가强硬하야 下値는업을것으로본市勢가 意外로 今朝寄付는下放◀午後의 步調는다시底反하나 어느放이든低價保勢를 意味하는것이므로 買方은다시緊張어쏘리는판◀强氣大將으로 東西市場에서左翻右突하든 前山一社長이悲觀的言表를하엿다는것은 亦是市場에沈靜空氣를자어내든모양?어느 可謂空前의買殺人이되엇것이나 는가다만時期가 問題이고 이는 哭◀아모리 政府가獨裁時代라도 事實에어그러지게되면 强氣天下가올것만은事實◀어느意味에서는低落의下値鍊磨을 할때로만

㊇……池田氏가藏相으로入閣하저 中央物價委員會에서는 諸物價를 昨年事變前까지 떠러트리라고 第一聲을 發하엿다◀此가어며한 方式으로實現化할지는불으나 物價가떠러진다면 米價도 諸物價大勢와 併觀하야 어느程度까지 떠러질것을可期◀그런데 米作은 米作의 豊凶如何를 度外視하지 못하는만큼 今後의 天候如何로써 大勢左右될 모양◀昨今의 天候로보아서는 植付無事◀徐히局面轉換을 거다릴時期?

米期 漸弛裡不勢

前場稍弛 一休今朝는 閑散裡에 後場天으로 實氣旺盛하야 阪地는先限三十四圓八十五錢인五丁反落을據하고 當은 一圓六十一錢연 十一丁低 中은 一圓九十九錢인 三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十八錢인 四丁低로 場當始한後 阪地八十五錢으로부터 八、九錢까지의 小反落을 보이엇스나 當地는 金太善中心으로한 賣勢強 買物이 續出하야 十六錢의五番同價로 七錢十七錢을 보이더니 結局阪地八十六錢을보고二十錢에 止揚하다

後場底堅 後場은 三十二圓十八錢인 三丁低로 始發한後 底堅으로 十七錢의 保勢이엇다

▲廿三年物 九八、五〇▲佛貨 四分一九八、五〇

物價抑壓策과 前途米價一考

昨今中央物價委員會에서 高物價抑壓의一策으로 昨年七月事變前의物價와가티 떠러트리라고主張하는모양인데 今回새로 入閣된池田藏相도 此에同感을 表示하고잇다한다 此가實施된다는때는經濟統制化工作如何에依하야 여느程度까지의反落은 免치못할것이어오 말아서米界에도 그影響이 업지아니할것을 參酌할수잇다 그러데 米價는 昨年五月에 當地先限三十二圓三十二錢의 高價를 보인後 六月에入하야는 三十一圓三十九錢까지 大瓦落을 告하고七月 即事變前에까지 三十圓九十錢臺로 又復低落을 告하엿다가 事變後 一擧棒上으로 三十三圓四十二錢까지 奔騰하엿섯다 即米價는 事變前位置에 復歸하게한다면 當地三十一圓四五十錢을 中心位置로 볼수잇는데 果然此邊에까지 低落을 告할지確斷할수는업다 即 昨年夏期의米界事情은 內地의農作 朝鮮의遺作後인만치 需給의樂觀을 불하지못하엿스며 今年은 內地의遺作 朝鮮의豐作後로서 도한需給의樂觀을不許하지 못하게되엿스니 今後가 順調이냐는 그以上의 反落도 豫期할수잇스나 그러치아니한때에는 昨年事變前市勢를 恢復키 難할것갓다 果如何?

當限一代記

今前場으로써 納會된當限은最初三十二圓三十五錢에 誕生하야 九十八錢으로 四十三錢까지反落하엿다가 三月一日殘存米의減少說이 擡頭하야 三十三圓十九錢까지奔騰하더니 結局發表는豫想보다의增加로 反히低落하기시작하야 二圓五十八錢의 低價를보이고 中限에入하엿다 即中限에入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仁川在米減少=五月二十九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品은 二六、〇三二叺 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品高의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三五一、一五七叺 五斗入 一、二三八叺◆白米四斗入 二、六〇二叺 五斗入四一六叺 一、一〇〇俵◆正租二五、七〇三叺◆大豆 八四、四五一叺◆小豆 二六〇叺◆大麥 四七五叺◆粉米 四六叺 一、四〇〇俵◆粟 八五三叺◆裸麥 三四七叺◆白麥 一〇〇叺◆蕎麥 一〇七叺◆綠豆 五〇叺◆糯米 三五〇叺

釜山續騰 天候는警戒를要하야 大體前日同價로 實質되고 잇섯다
◎穀良三等 三一、六〇 多穀良三等 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大邱下落 近年에업는 好天候로 地場人氣는 여전堅調로 休日前의不拘로 一旦進으로押目待로 不買하야 結局十錢低이엇다
◎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二〇

群山不變 最近과가름 天候는 好順으로서는 드물게보는 好順이요 用水는 더할나위업서 奧地도 農家에 쫓기고 엇서서 多少나마 氣分的으로 持久할수 업는 一部의 賣放으로 廻米는 二十一輛으로 漸增하야 市中賣物은 相當하나 休日後의 地場精米側手當과 入荷側 物色買로 잇서 곳 消化되고 前價同樣으로 下支되엿다
◎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〇〇

木浦下押 準天災의天候로써는 內地同樣의 好順으로 農家로서는 아주滿足하야 濟氣一貫이든奧地도 여기서는 氣折되지안할수업서 十一輛의 出廻가잇섯고 休日後나 各地期米低도 加하야 市價十錢下押하야 相當한 取引이成立되엇다
◎銀坊主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三三、〇〇

各地當限受渡內容

	石數	價格
大阪	二五、九〇〇	三五、一〇
東京	一三、五〇〇	三四、八〇
神戶	七、三〇〇	三四、七〇
下關	一二、四〇〇	三三、八〇
名古屋	一三、一〇〇	三五、一〇
京都	三、一〇〇	三五、〇〇
金澤	一、三〇〇	三三、六〇
大邱	六、三〇〇	三二、五〇
釜山	七〇〇	三二、一〇
木浦	一、八〇〇	三一、四〇

正米 區區裡軟調

京城下支 順雨로 天候는 農地는 農繁期이나 依然賣物은 적고 따라서 市中도 自然賣物濟에 牽制되어 淸算不味의 比로는 崩落되지안허 場面은 小口賣買程度로 市價도 前價同樣으로 不變이엇다 ㊀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一〇

仁川不味 內地人注는 依然不振이요 定期의 低迷도 잇서極度로 活氣薄의 場面을 呈하고 잇는데 月末關係의 賣物이 多

今日財界(三十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三十日)

[illegible]

海外經濟(三十日)

[illegible]

銀行券(三十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期 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一九九六 二六七

期 米 益 東益夏 仁川